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 가족생활의 개인화와 친밀성의 탈제도화

## – 이성애 청년 동거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희 연

# 가족생활의 개인화와 친밀성의 탈제도화

– 이성애 청년 동거를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배 은 경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희 연

김희연의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_____ 장 경 섭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배 은 경 _____ (인)

위 원 _____ 추 지 현 _____ (인)

# 초 록

본 연구는 연애, 결혼, 출산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N포세대 담론이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친밀성을 유지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경험의 여러 층위가 획일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 위기 이후 취업난, 주거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친밀성의 영역이 모두 무너졌다고 하기에는 친밀성과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한 동거와 같은 가족 구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상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었느냐 했을 때 사회적 인식 외에도 현재의 법체제는 이를 반영할 만한 충분한 질적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은 사회에서 혼자서만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누군가와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존재다. 이성애적 관계에서 동거는 그러한 돌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에 관한 생각, 정치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경험이 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친밀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족 구성의 근대적 형태가 아닌 새로운 친밀성의 방식이 추구되는 개인화라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의 개인화와 친밀성의 탈제도화라는 새로운 친밀성의 방식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개인화란 개인의 일대기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유연한 '이동성'을 요구받고 가부장적 가치에 기초한 근대적 가족 규범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밀성 유지를 위한 조건을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환해버리는 착시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20~30대 청년들의 실제 동거 계기, 경험, 동거를 통해 얻게 되는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을 심층면담하여 이들의 가족생활을 개인화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동거 계기는 모두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으로 그 안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적 문제들과 갈등을 겪으며 친밀성에 관한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화된 삶의 조건들 속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친밀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성찰과 행동조율을 해 나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인격적 어른됨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의 삶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동거는 전통적 가족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제도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통적 가족주의란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인 가족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양가 가족이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결혼에 관한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한국에서 '결혼이 아닌' 동거는 여전히 사회적 낙인 문제를 겪게 했지만, 이러한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활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각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동거 친밀성만의 특징은 이들이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했다.

특기할 만한 지점은 이들의 관계가 나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동거 과정에서 헤어짐을 염두하기보다 관계의 영속성을 기대하며 동거를 시작했으며, 동거 커플 특유의 긴장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헤어짐이 쉬울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동거 관계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상호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동거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대안적 생애과정으로서 동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고 있었다. 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법률적 테두리 보다 대체적으로 친밀성 그 자체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결혼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의 삶의 기준점을 세우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주체적 동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독립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생애과정을 계속해서 모색하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었다.

본 연구는 동거에 관한 질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의 실제 친밀성과 관련한 경험들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개인화와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친밀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례들을 통해 기존의 3포세대 담론 기각을 시도했다. 또한 개인화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동거 연구는 가족생활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갖게 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동거, 친밀성, 가족, 청년세대, 개인화, 탈제도화**
**학 번:** 2019-20087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7
제 3 절 이론적 자원 ..... 22
제 4 절 연구 목적 ..... 32
제 5 절 연구 방법 ..... 34

제 2 장 동거에서 경험하는 친밀성 ..... 39
제 1 절 동거의 시작: '그냥 자연스럽게' ..... 39
제 2 절 현실적 문제들과 갈등 ..... 43
제 3 절 친밀성의 경험과 양상 ..... 51

제 3 장 '결혼이 아닌' 동거 ..... 60
제 1 절 사회적 낙인 ..... 61
제 2 절 동거 친밀성의 특징과 동거의 지속 ..... 65
제 3 절 '헤어짐'의 어려움 ..... 71

제 4 장 동거 '가족'의 가능성 ..... 75
제 1 절 가족이라 말(안)하기 ..... 75
제 2 절 동거의 이점과 무게 ..... 79
제 3 절 대안적 생애과정의 모색 ..... 82

제 5 장 결론 ..... 88
제 1 절 요약 ..... 88
제 2 절 논의 ..... 90

참고문헌 ..... 94

# 표 목차

[표 1]연구참여자 속성 ..... 35
[표 2]도출 개념 및 주제 ..... 38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제기

청년 세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로 시작하여 2010년대에 유행한 7포(꿈, 희망까지 포기), 다포, N포 세대 등의 명칭들은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불평등과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 담론이 되었다. 오늘날의 연애를 비판하는 흐름도 있다. ‘4B(4非,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는 젊은 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가족규범과 표준화된 삶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연애를 거부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청년들이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모든 생애적 선택들을 포기하였나? 중요한 것은 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밀성이나 가족 또는 돌봄의 관계가 없이 개인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 청년들은 결혼과 같은 기존의 제도적 선택은 포기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대안을 찾고 있다. 그것의 하나의 예가 동거인데, 연구자 주변에도 결혼은 하지 않고, 이성애 관계를 맺으며 섹슈얼한 친밀함을 가지고 공동 주거를 꾸리고 있는 2030 청년들이 많았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다.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인 핵가족의 표준을 벗어난 형태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혼인과 혈연으로 묶여지지 않았지만, 깊은 친밀성을 느끼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정책이나 담론이 그러한 다양한 가족 구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사회과학적 범주로도 포착되지 않아 1인가구로 분류된다.

기존 담론이나 제도는 청년들의 친밀성에 대한 추구, 가족 구성의 새로운 경험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나 친밀성이 다양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의 기준을 법률혼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거 커플들의 내밀한 삶의 현장, 하루 단위의 일상적 경험들은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기존의 3포세대 담론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 청년들 안에는 ‘선택’으로서 비혼을 결심한 이들도 있지만, ‘비혼’은 아니더라도 결혼을 그저 선택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없는 대안적 삶을 사는 사람, 애초부터 선택의 폭이 다른 사람들도 존재한다. 성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 이성애적 동거커플의 삶 외에도 동성커플, 셰어하우스와 같이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등 수많은 삶과 사랑의 방식들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동거 커플' 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이성애적 커플링(Coupling)을 통해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다. 이 논문에서 '동거'란 두 성인남녀가 성적 친밀성을 기초로 주거와 생활을 공유하며 가족생활에 준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동거라는 경험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청년 세대를 생존에 쫓겨 성적 친밀성도, 인간관계도, 공동생활도 모두 포기한 존재로 재현하는 N포 세대 담론에 맞서, 청년 세대 안에서 시도되는 좀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청년 세대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와 본 논문의 차이점은 2030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가족과 관련한 새로운 실험이나 변화 그리고 그것에 관한 예측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삶을 골고루 살펴보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동거를 사실혼 패러다임이나 결혼 이행 이전의 임시적인 상태로 보지 않는다. '사실혼'은 상속이나 재산 분배, 양육권 등의 분쟁으로 제기되는 법률상의 개념으로 그것의 성립 요건의 가장 큰 기준은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공동생활의 실체는 분명하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기타 다양한 형태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2030들의 동거는 법률적 사실혼 개념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동거에 관한 시대 인식은 이미 많이 변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남녀의 비혼 동거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2~30대에서는 이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60.1%)이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혼인과 혈연뿐 아니라 사실혼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였다[1]. 한 사설 조사 회사의 설문조사에서도,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느끼지만 동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동거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동거 경험을 한 지인이 존재하는

[1] 한겨레, "국민 10명 중 6명 '가족 범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2019. 9. 29

응답자도 49.2%에 달했다[2].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가족과 친밀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과 동거의 구분도 그 경계가 흐트러지는 추세다.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관계는 과연 결혼 관계로 보아야 할지, 동거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또 이들을 가장 법률혼에 가장 가까운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이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되물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일상인들의 경험들을 우리 제도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법률혼의 바깥에서의 부모 되기(비혼 출산)라던가 한 부모가정, 동성애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법률혼 외의 다양한 친밀성에 관한 고민은 필수적이게 되었다. 가족의 개념은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그만큼 상이한 가족 유형이 존재한다.

가족의 다양성을 논하는 여러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보는 시선에 관한 문제제기와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가족에 관한 다양한 시선들을 떠오르게 했다[3]. 한부모 가정이나 동거 커플, 비혼족, 셰어하우스 공동체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형태가 되었다. "탈가족 시대, 이상한 정상 가족[4]"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가족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말한다. 혈연이나 결혼만으로 가족이 이뤄지지 않으며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혼족과 딩크족(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도 더 이상 젊은이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친구들이 모여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사람, 대학 선후배도 가족이 된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이 혼인과 혈연의 범위를 넘어서 상상되고 있는가?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2015년 개정교육과정 기준)에는 과거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한 것을 설명하며,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일손으로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취업이나 교육

---

[2] "'싱글라이프' 만족도 높아진 시대, 비혼·동거·계약결혼 늘어난다", <세계일보>, 2019. 3. 26,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5547522), 2019. 10. 10 열람.

[3] "'가족' 한계 인정한 정부, 다양성 포용 우선순위로", 시사인, 2021.05.18, 노도현 외2, "부계·법률혼 중심 전통 가족개념 탈피…법 개정 등 갈 길 멀어", 경향신문, 2021.04.27, 임재우, "없는 존재 돼버린 법외 가족들…"생활동반자법 논의할 시점", 한겨레, 2021.05.13

[4] "'탈가족 시대' 이상한 정상가족 … 혈연 결혼 NO '분자가족' 봇물", 매경이코노미, 2020.09.23, 김경민 외

등으로 개인 생활을 위해 결혼 이후에는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교과서는 핵가족 외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와 서로 다른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조손 가족' 그리고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 가족' 등의 사례가 나와있다.

그런데 여전히 가족 구성의 틀은 혼인과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확대 가족과 핵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세대수에 따라 구분된 것이라면, 앞서 소개된 다양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정상 가족(4인기준)을 해체한 것이라기보다, 그 중 일부가 변형 또는 제외된 상황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 변형이란 재혼이 되거나, 한 명이 빠지거나, 외국인이거나 조부모 혹은 동물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바뀌거나 추가되는 등의 형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혼인과 혈연이라는 가족 구성의 계기를 거치지 않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을 가족 구성이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표준가족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교과서에는 동거 커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다양한 가족들의 구체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동거라는 삶의 형태는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오래된 가구 구성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구성요건의 토대는 여전히 '핵가족'이 기준이 되어 현실적 다양성이 포착되지 않는다.

이처럼 구성원들 사이의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는 기본 단위로서 가족은 주로 혼인과 혈연으로 만들어진 생활공동체로 기능, 정의되어 왔다. 이는 법제나 복지체계와 연결이 되는데, 개인화가 진전이 되면서 가족의 의미는 법적 틀보다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화로 인해 단순히 가족이 필요 없다거나 탈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차이는 하나의 가족 관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혼자서만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양과 돌봄의 상호 책임을 나눌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개인은 법률혼이 안 되어 있으면 독신이 되어 버린다. 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가족생활의 변화가 현재 법체제에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의 계기 자체를 혼인과 혈연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21년 현재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시행령 작업[5]을 추진 중이다. 논의의 배경은 앞서 언급한 교과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맥락과 비슷하다. 즉 1인가구로 분류되고 있는 동거 커플과 같은 법률 외 가구 구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정상 가족의 의미를 전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6. 생활동반자법[7] 또한 발의될 뻔하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선 법률안들은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입법이 무산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우려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상상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법 제도를 요구하거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다양한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실제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이것이 혈연이나 혼인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더 많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거 연구는 그러한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의 연장선 상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합은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다양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점에도 이들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거라는 현상은 언론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며 '구닥다리' 이슈로 전락해 버렸다[8]. 1990년 이후 2012년 전까지 '동거', '가족' 그리고 '커플' 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들어간 기사는 중앙지 기준으로 10건 이내로 2012년 6월에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4월과 5월에 각각 28건, 27건으로 정도다. 학계에서도

---

[5] 건강가족기본법(2004년 공포, 2005년 시행)은 가족 지원과 교육, 상담 등 가족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만을 가족으로 정의(제3조 제1항)하고 가족의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안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가족' 및 '건강가정'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 용어를 선택,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한다는 조항 삭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종교 단체 등의 반발로 폐기되었다. 오마이팩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면 동성혼 합법화" 주장은 '거짓'", 2021.03.17

[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1인가구에만 주목하는 것에는 인구구성의 변화가 있다. 실태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2019년 30.2%로 2000년(15.5%) 대비 배로 급증했다. 그 비중은 2030이 가장 크게 늘었고 가구 수는 고령층이 급증했다. 전형적 '정상 가족'으로 인식되는 핵가족(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는 2010년(37.0%)보다 2019년에는 29.8%로 줄었다. 그러나 주거, 상속, 복지 등 사회 정책은 변화하는 가구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으로 2014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마이뉴스, "동거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2021.04.05

[8] 데일리굿뉴스, "살아보고 결혼할까?", 2007.07.18

그동안 특별한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친밀성의 형태를 측정할 기준으로서 동거라는 소재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만큼 공론화가 힘든 이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와 공동 주거, 생활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사실상 가족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혼을 하지 않았고 정상 가족의 범위에도 맞지 않다 해서 '한 가구'로서 이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행된 '동거 실태 조사'는 실험적인 질문지조사로 3,000여명의 온라인 패널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2030 청년들이 동거에 부여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보려면, 다른 세대와는 다른 이 세대만의 젠더화된 생애 전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가족구성으로 연결되는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2030 청년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고, 특히 2030 청년들의 생애 전망을 보려 하는 것은 청년들이 개인 단위로 노동중심적 생애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 에서다. 즉 청년들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해버리는 기존의 저출산 담론을 넘어 청년층의 생애전망을 젠더분석에 기반하여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2030 청년세대들이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동거와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청년 세대가 친밀성이나 가족 구성을 모두 포기했다고 보여지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려 한다. 결혼 적령기가 된 2030 청년들은 대안적 생활 양식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씩 하는데, 결혼 전 동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부터 동거만 하고 싶다거나 법적 결합 없이는 어려울 것 같다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어느 쪽이건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고 이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청년들에게 '함께 살기'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관한 질문과도 등치 된다. 이처럼 동거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또 실제로 동거를 경험해 본 구성원들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친밀성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이다. 동거 현상을 단순 일탈이나 지나가는 현상으로 축소시켜 버린다면 사회 제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첫째는 혈연과 혼인을 넘어서는 가족 구성과 친밀성의 계기를 이해하기 위해 실재하는 경험들을 읽어보는 것이 있고, 둘째는 그러한 변화하는 가족과 친밀성에 대한 생각이 젊은 세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혼인과 혈연이라는 통념을 벗어나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고 선언할 수는 없지만, 혼인과 혈연이라는 것을 매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한 동거라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거는 주류적 가족 형태에 관한 청년들의 고민, 대안적 가족에 대한 실험, 변화하는 젠더 역할 등이 뒤섞여 있는 하나의 사회학적 현상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규범과 인식 속에서 친밀한 관계는 대체적으로 결혼으로 이행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혼인을 하지 않은 친밀함' 이라는 측면에서의 동거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혼인 패러다임의 한계 극복을 시도한다. 혼인 의사라 함은 지극히 주관적 영역으로 형식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두 사람의 혼인 의사는 함께 하는 기간에도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동거하는 청년들이 가족에 관한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 살펴본다.

##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본 논문은 같은 청년 세대 내부에도 이질성이 존재하며 관계 내부의 젠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질적 연구 방식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주류적 청년 세대 담론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청년들이 '정상적' 생애주기를 '포기'한다고 여기면서 청년 세대를 제한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유럽과 미국의 통계적 논의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국내의 경우 2030 청년 동거 커플만을 분석적으로 설명한 통계적, 질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기존의 동거를 주제로한 연구들에서는 청년들의 내밀한 삶의 이야기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먼저 동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미국과 유럽의 연구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동거 경험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청년세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 1) 동거 연구

#### 1.1 미국과 유럽의 연구

사회과학에서 동거(cohabitation)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에 처음 이뤄지기 시작했다. 1972년 미국의 매클린(Macklin)은 이성애자 대학생들의 동거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동거 연구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는 당시 코넬대학교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설문을 통해 동거가 아주 흔한 현상이며, 대학생들 사이에선 새로운 성적 표준(sexual norm)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해냈다. 매클린은 동거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트렌드로 바라보며 이후 동거 관련 소식지를 창간하고 관련 학술회의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당시 미국 사회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샀고, 매클린은 논란 끝에 결국 코넬대학교를 영원히 떠나야 했다 (Bowman, 2010: 125-127).

동거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그전까지는 동거와 관련한 공식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대표성 없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설문이나 면접을 통한 연구들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연구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주로 동거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동거에 대한 규모 있는 데이터셋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동거 연구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등장한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셋에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the High School Class of 1972 (NLS-72)'와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NSFH)'가 있다 (Bowman, 2010: 127-129; Smock, 2000: 2). 유럽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 동거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Eurostat의 설문 데이터와 UN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지원으로 이뤄진 'Fertility and Family Survey (FFS)' 등이 그 예시이다 (Booth et al., 2002: 6). 이러한 데이터셋의 등장으로 동거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동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실은 동거가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동거는 특히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부 유럽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며,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Booth et al, 2002: 6). 또한 동거가 1970년대를 전후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 역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전까지는 흔하지 않은 현상이었던 동거가 이토록 빠르게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있다. 만혼화,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출생률 감소 등의 현상은 모두 동거의 빠른 확산과 맞물려 일어난 변화들이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추동한 요인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 및 세속주의의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사라지게 만든 '성 혁명(suxual revolution)'이 그러한 요인들에 해당한다 (Smock, 2000: 5).

이처럼 동거가 빠르게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대두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주로 양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였다. (1) 어떤 사람들이 동거를 하며, (2) 동거 관계의 지속기간은 얼마나 되며, (3) 동거가 이후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4) 나아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이 동거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동거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관찰되는 흔한 현상이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이나 학력이 조금 낮고, 보다 진보적이고 비전통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이들에게서 그 경향성이 조금 높게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동거의 지속기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동거가 5년 이내에 결혼 또는 관계 종결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동거 관계는 수년 이내로 끝나는 비교적 짧은 형태이며, 5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 관계는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바로 동거가 이후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많은 동거가 커플들이 실제 결혼을 하기 전 합을 맞춰보는 일종의 예행연습의 형태로 나타나며, 따라서 이후의 결혼생활이 보다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전 동거는 오히려 결혼생활의 질을 낮추고, 나아가 이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에 학자들은 이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선택론(selection explanation)'이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즉, 애초에 결혼 이전에 동거를 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개인적 특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이 그들을 동거로 '선택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결혼생활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는 비전통적인 가치 태도, 낮은 관계 맺기 능력 등이

제시되었다. 다른 하나의 설명인 '경험론(experience explanation)'은 동거에 선행하는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동거 경험 자체가 이혼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선택론에 비해 경험적 증거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mock, 2000: 6).

동거에 관한 학자들의 또 한 가지 주된 관심 주제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동거를 경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들은 동거 커플 내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성장기에 어느 한쪽 부모가 맺는 새로운 동거 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부모의 동거 관계를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40%에 달하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자녀들이 부모의 동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며, 그들은 이후에 자신들의 가족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도 변동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mock, 2000: 11-12).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동거를 경험하는 것이 자녀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하고 또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기에 뚜렷한 합의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Bowman, 2010: 158-165).

한편 주로 2000년대에 들어 동거 커플의 관계 자체에 대한 연구들도 조금씩 진행되어 왔는데, 커플들의 경제적 관리, 가사분담,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가 그에 해당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거를 하는 커플들의 절반이 조금 넘는 비중인 55%가량이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커플 사이에 친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관리 방식에 있어 결혼한 커플들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사분담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가사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결혼한 커플들에 비해 동거하는 커플들이 전통적 성 역할에서 벗어난 수평적인 가사분담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질은 주로 커플들의 행복도와 우울감을 조사함으로써 파악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대체로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결혼한 커플들에 비해 조금 덜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반복적으로 도출되었다. 몇몇 학자들은 이를 동거커플이 경험하는 '관계의 불안정성' 탓으로 돌리며, 동거와 관련한 제도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동거커플에게 법적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관계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owman, 2010:

138-151).

## 1.2 국내 연구

국내에서 동거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최초로 동거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명확한 모집단이 없어 온라인 패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설계되었다. 따라서 인구 중 얼마 정도의 비율이 동거를 경험해보았거나 경험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방법은 없다. 그 전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들은 혼인신고자료처럼 동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이터에 의존하거나, 혹은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활용한 설문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택해야 했다. 기존의 국내 질적 연구들 또한 동거를 기성의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일시적인 결합이나, 단순히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공동체 정도로 설명함으로써 동거 현상 자체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먼저 통계청의 혼인신고자료와 사회통계조사자료를 활용한 이연주(2008)의 연구는 양적 분석을 통해 동거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거는 우선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 현상이며, 구체적으로는 주로 결혼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내리는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거의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적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동거를 더 많이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거하는 커플에서의 성 평등 혹은 성역할 반전의 빈도가 결혼한 커플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신고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의 비슷한 예시로 김원정 · 김순남(201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앞선 이연주의 연구결과에 덧붙여 그들은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동거 가구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동거가 결혼의 잔여적 형태에서 벗어나 결혼의 대체 혹은 대안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여전히 소수의 비규범적 가족 실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성격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효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또한 저자들은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여성들의 능동적 '가족 만들기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하며, 여성들의

대안적 가족 실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거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분석으로는 비혼 동거 가족에 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변수정과 그의 동료들은 가족형 태의 다양화라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동거가족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이 직면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총 253명의 설문조사 데이터가 분석되었으며, 심층 인터뷰의 경우 14명의 동거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거 경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동거를 택하였다. 절반의 응답자가 결혼의 한 과정으로서 동거를 선택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결혼의 대안으로서, 또는 결혼과 관계없이 동거를 선택했다. 또한 동거 커플들이 여러 사회적 제약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제약과 차별로는 결혼한 부부들처럼 주택 구입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낙인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의 동거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하며, 동거 커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김영란 외, 2021)"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부가 연구로, 실제 동거 경험이 있거나 동거중인 3,000여명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동거생활 실태, 파트너 및 가족관계, 동거가족 및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비혼동거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탐색했다. 해당 연구는 모집단이 없다는 점에서 비혼동거 일반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3천여명의 통계조사는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거 사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17.3%)"가 1순위 응답으로 집계되었다. 동거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파트너와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88.4%)"을 느끼고, "상대방의 생활 습관 및 라이프스타일 파악을 통해 결혼 여부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84.9%)", "주거비, 생활비 등을 공동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적다(82.8%)"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의 불편한 점이나 어려움은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50.5%)”을 겪거나 “가족 혜택,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한(60.4%)”점 등이 있었다.

동거 생활의 경제적인 측면은 특히 20대에서 “각자의 소득을 합하여 사용(78.3%)”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주거 비용 또한 “공동으로 마련(64.0%)”한 비율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관리 및 자산관리의 경우 “각자 알아서 관리(58.8%, 48.9%)”로 조사 대상자들이 생활비 부담과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비용은 같이 마련하고 소득이나 자산관리는 각자 따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에 “만족(약간 만족+매우만족)”하는 비율이 63.0%로, 2020년 가족실태 조사에서 배우자 관계 만족 비율(57.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사 수행 분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둘이 똑같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있음”에 대한 응답은 47.8%로 “동거 파트너 관계에서 갈등 경험 비율이 더 높았음”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를 비혼동거 파트너 관계는 “긍적적이며, 가사 분담에 대한 동등한 비율이 높으나 관계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약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모와의 교류 항목에 있어서는 각자 일상적인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파트너 부모에 대해서는 74.0%가 “안한다”고 응답했다. 파트너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는 “연락과 만남 모두 ‘거의 하지 않음’ 비중이 각각 31.7%, 30.5%”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남성의 경우 연락은’한달에 한두 번’이 가장 많고, 만남은 ‘거의 하지 않음’이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파트너 부모님과의 연락과 만남 모두 ‘거의 하지 않음’이 가장 많았음”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가족의례 문화에 대한 인식 부분인“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가부장적 가족호칭 개선” 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비혼동거 응답자가 가족실태 조사에 비해 더 높고 뚜렷한 동의비율을 나타냈다. 이 안에서도 여성의 동의 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성별 격차가 뚜렷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74.1%),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72.6%)’,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68.4%)’”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실태조사에 비해 혈연관계(89.0%),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83.7%)로 응답한 비율은 낮고,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67.7%)’,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41.6%)’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3,000여명이라는 방대한 표본을 가지고 최초로 수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그동안 미비했던 통계적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상기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는 젠더에 따른 차이점이나 연령 변화와 같은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기보다 동거가족에 대한 법적 인정과 관련된 정책적 정당화를 위한 기초조사와 같은 성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연구는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항목별 동의수준만 기술되고 있어 연령 변화에 따라 사회적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도 일관되게 해석되고 있지 않다.

한편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인 연구는 주로 여성학계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어 왔다. 여성주의 관점이라 해서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성학에서 ‘가족’은 가부장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박은주(2002)의 석사학위논문은 10명의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동거 경험의 양상과 대안적 가족으로서 동거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했다. 그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해 주체적으로 동거를 선택하고, 동거 과정, 특히 가사노동과 경제적 분담에 있어서 성 역할의 탈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오늘날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동거가 대안적 가족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동거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여성주의의 맥락에서 김지영(2005) 역시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동거 경험이 있는 10명의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통해 여성들의 동거 선택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부장적 요소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며, 하나의 전략적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동거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문제가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며, 동거커플들이 상호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동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동거 경험자들의 인간관계 단절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앞선 동거와 관련한 질적 연구들은 모두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했다. 동거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도 동거와 관련된 질적 연구나

경험연구들은 젊은 세대, 즉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청년들을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적 행위자로 보고 청년 세대만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기존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은 동거라는 상황 속에서 선택과 행위를 하는 청년들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가족 구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송인하 · 임춘희(2014)의 연구의 경우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동거 관계에 대한 이론 구성을 시도한다. 동거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전통적 결혼의 불안정에 기인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속성을 갖는 동거 관계는 "성 평등 이념이 체화된 성애적 결합"이라 규정한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 평등의 실현은 이념적인 것이라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적 요소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즉 동거의 이상적인 관계 성립의 조건은 일상 생활의 공평한 가사분담이 핵심 요소가 된다.

송인하 · 임춘희(2014)는 동거 관계가 전통적 가족제도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지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 말하며 결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동거보다 발전된 체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 평등 관점에서 동거에 관한 사회적 지지나 규범이 존재한다면, 전통적 가족의 결혼불안정에 대한 인식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는 합리적으로 동거지속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송인하 · 임춘희(2014)는 또한 성애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동거를 경제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매우 편협한 관점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증적 연구가 동거의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이 경제적 문제나 생활의 편의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다루는 경향(Sassler, 2004, 송인하 외, 2014, 50, 재인용)을 비판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인식을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이념과 관련하여 가족문제의 핵심으로 고부갈등 가장 먼저 꼽는다. 전통적으로 고부갈등은 남성중심의 가족제도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갈등으로 권력불평등을 잘 드러내 보이는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 요소는 한국의 핵가족이 외형적으로는 부부중심의 가족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서구처럼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며느리에게 시댁은 항상 봉사해야 할 대상으로 다가와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송인하 · 임춘희(2014)는 동거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존재하고 특히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점에서 섹슈얼리티 통제방식에서도 성차별이 나타난다고 본다. 특히 일반적으로 동거는 여성에게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비난과 낙인이 생기며, 남성에게는 생계 부양을 회피하려는 무책임성으로 규정되고는 하는데, 이러한 잣대는 성 차별적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동거 및 사실혼 관계가 초래하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조은희(2009)의 연구, 대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동거 경험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본 김미현(2009)의 연구 등이 동거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의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양적 연구는 동거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동거의 계기, 결정 요인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두 가지 질적 연구에서는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가부장제에 관한 비판 등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주로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당사자들이 동거를 이해하는 방식, 의미화 등에 관한 이야기들은 드러나지 않아 개별 행위자들을 내밀하게 분석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거와 관련한 질적 연구에서 심층면담의 대상이 모두 여성들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세계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즉, 기존의 동거 연구들은 동거 과정에서 청년들이 어떤 변화를 겪으며 이는 관계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동거가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에 있어 논의에 공백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동거 관계 자체에 조금 더 주목하여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한다.

### 2) 청년 세대 연구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와 같은 청년들에 관한 각종 언론과 학계의 담론들은 지금의 청년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기법처럼 자리 잡았다[9]. 이러한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들은 표준화된 생애 과업들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9] 김익환, "'3포세대' 급증…사상 최저 출산율 우려", 한국경제, 2020.12.31, 이호준, “2030세대 절반 ‘나도 5포 세대’… 남 ‘결혼’, 여 ‘출산’ 가장 먼저 포기”, 경향비즈, 2015.03.03, 전효진, “3포세대? 이제는 7포세대!, ‘결혼·출산·내집마련順 포기’”, 조선비즈, 2015.04.30

‘비혼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단행본들도 유행 장르가 된 듯하다[10]. 베스트셀러가 된 <90년생이 온다>가 출판된 2018년 이후로 MZ세대에 대한 책과 기획 기사들도 세대론을 이용한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경쟁적으로 청년 세대를 분석하고 있다[11]. 이러한 청년세대 담론들은 초저출산 현상이나 가족의 해체와 같은 ‘정상적’ 생애주기의 실패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거나,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는 기능적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친밀성의 포기’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동거 커플’들의 삶의 유형은 그러한 틀(결혼 포기, 비연애, 비혼) 어디에도 딱 맞게 끼워 넣을 수 없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을뿐더러 각자가 자신의 생애를 정의하는 방식이나 결과도 조금씩 달랐다. 실제 필자가 인터뷰한 동거커플들도 인터뷰 이후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헤어지고 다른 동거를 시작했거나 다시 1인가구로 돌아온 경우 등 그 형태가 다양했다. 그동안의 주류적 청년 세대 담론은 따라서 ‘동거커플’들의 이야기를 설명하지 못한다.

기든스(2018)는 생애과정(life course)에 관한 연구가 아직은 많이 발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청년문화와 같은 새로운 주제들에 접목했을 때, 상이한 단계에 있는 사회적 행위자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12]. 본 연구 또한 세대론의 내용과 주류적 청년 세대 담론, 그리고 청년세대 담론 자체를 비판하거나 그 내부의 이질성과 관련하여 젠더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동거 연구에 접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같은 청년 세대일지라도 친밀성과 관련한 생애사의 내부적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 2.1 세대론과 청년세대

‘세대’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다뤘던 칼 만하임(Karl Manheim)은

---

[10] 심윤지, “비혼 여성의 좌충우돌 난자냉동 에피소드, 단편영화 <마이 에그즈>”, 경향(플랫), 2021.05.20, ““썸보다 돈이 좋아” 코로나 청춘들의 비혼 예찬”, 조선일보, 2021.03.01

[11] 홍진수 외, “사회 주역으로 뜨는 ‘세대’가 궁금해…‘밀레니얼’ 출간 봇물”, 경향신문, 2019.12.30, 이향휘, “결혼은 선택, 맘에들면 '내돈내산'…밀레니얼과 또 다른 Z세대입니다”, 매일경제, 2021.08.13, 허정원, ““당장 생존 급한데”…초경쟁사회, 90년대생은 출산이 두렵다”, 중앙일보, 2021.03.04, 백일현, “MZ 10명 중 6명, “조직문화 불합리하면 ‘짐 쌀 준비한다’”, 중앙일보, 2021.07.29

[12] 기든스, 2018,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옮김

사회운동론적 관점에서 '구조적 세대론'을 주창했다. 만하임(2013)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세대를 진보와 보수로 나눈 '실증주의적 세대관'이나 '경험'에 따라 진보 보수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 '낭만주의적 세대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 세대 안에도 복수의 '세대단위[13]'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세대 위치'와 '실제 세대'가 동일하지 않으며 세대 현상을 단순한 위치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한다. 단순한 계급 지위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구성된 계급과 동일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세대는 단순한 세대 위치보다 더 많은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역사적-실재적 문제를 겪은 청년들일지라도 실제 세대의 범주 내에서 각각의 다양한 '세대단위'들을 구성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일 세대의 동시대의 비동시성'이라고 표현되는데, 세대의 구분과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구학적 접근과는 차이를 보인다. 만하임(2013)은 공동의 운명적 사건들에 참여하는 공동체 내에서도 특수한 세대단위들이 생성된다고 말하면서 단일한 '시대정신[세대 의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의 범주 속에서 표현되는 양극성을 중요한 것으로 본다. 책의 역자는 이러한 만하임의 세대단위들의 개념은 실제 세대로서 청년이라 해도, 동일 사건에 모두 진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토대로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김홍중(2015)은 만하임의 '세대 의식'을 마음의 사회학적 방법으로 대체하여 '청년세대'의 특이성을 '생존주의 세대'라 이름 붙인다. '삼포세대'를 포함한 폭발적인 청년 세대론을 언급하며 2030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삶의 당연한 과제가 아니라 포기하거나 선택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배경에는 "일반화된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생존주의적 마음가짐이 자리한다. 저자가 마음을 세대 구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이유는 '세대'는 특정 출생 코호트로 환원되지 않으며, 세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생존주의 상황에서 청년들은 살아남기 위한 개인적

[13] 저자는 '세대위치', '실제세대', '세대단위'라는 개념적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세대위치'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 역사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세대'는 같은 역사를 경험한 것뿐 아니라 동일 세대를 살아가는 공동 운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단위'는 실제세대보다 더 구체적인 유대를 맺으며 훨씬 더 깊이 세대운동에 관여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지표들(스펙)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되었고, 따라서 친밀성의 영역은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 영역(리스크)로 전환"되었다 말한다. 과거 세대에는 당연시되던 생애과정이 '탈-표준화(de-standardized)'되면서 '정상적' 삶은 고도로 어려운 삶의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평범한 안정을 위한 분투'로 표현하는데, "친밀성과 가족의 영역을 유지하여 (…) 평범하게 사는 것은 불가침의 유토피아(김학준, 2014:136, 김홍중, 2015, 재인용)"이 된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생존주의에 '지배'되는 것은 아니며 생존주의적 행위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14]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전체에는 생존주의라는 구조적 환경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임홍택(2019)은 <90년생이 온다>에서 90년대생의 특징을 '간단, 재미, 정직'으로 정리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은어나 인기 프로그램, 모바일 시장의 변화, 청년들이 분노하는 공정성 등의 이슈를 예로 들어 청년 세대의 특징을 설명한다. 90년대생들은 '참견'이 아닌 '참여'를 통해 인정 욕구가 충족되며 번거로운 것은 피하고 짧고 재미있는 것을 원하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욕구를 가졌다. 청년들의 가치관도 변화했다. 청년 세대는 떠들썩하게 불매 운동을 벌이지 않으며, 스스로가 호갱이라고 판단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말없이 이동한다.

90년대생들의 특징을 정리한 다음, 90년대생을 직원으로 맞이하는 이전 세대의 관리자 급을 위한 장, 그리고 소비자로서 90년대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장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구성으로만 보면 세대 문제에 관한 논의라기보다 기업 경영서에 더 가깝다. 90년대생 이해를 돕기 위해 꼰대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하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지만 일각에서는 이 책 내부에는 계급과 젠더가 지워져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청년세대 관련 담론들은 대체적으로 청년들이 취업, 주거 등의 복합적 압박 속에서 생애 과업을 하나 둘 포기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실제 세대는 단순한 세대 위치보다 더 많은 것을 뜻하지만, 한국 사회의 청년 담론은 김홍중(2015)의 생존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쟁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14] 저자에 따르면 마음은 생존주의 뿐만 아니라 독존주의, 공존주의, 탈존주의로 분화된다. '독존주의'는 사회적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홀로족, 니트족 등이 해당된다. '공존주의'는 집합적 라이프스타일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노와 공감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실천들이다. 쉐어하우스 공동체가 이러한 공존주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존주의'는 생존주의로부터의 과격한 이탈로, 마음이 부서진 상태를 의미한다. 친밀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비혼담론이나 삼포담론과 가깝다.

임홍택(2019)이 ‘간단, 재미, 정직’으로 90년대생들을 특징지어 표현한 모습 또한 그러한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발현된 청년 세대만의 살아남기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거 커플과 같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가족의 다양성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어렵게 한다.

## 2.2 청년세대 담론 비판

청년세대 담론은 실제 세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된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은 모두에게 공통된 상황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보여주진 못한다. 또한 청년들이 전개해 나가는 일상적 행위들의 의미에는 단순히 정상적 과업으로 여겨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하지 않기로‘선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욕구들이 분명 존재한다. 또한 표준화된 삶에 대한 비판의 의미에서 기존의 제도를 반대하거나 대안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세대 담론을 비판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선기(2019)는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초기한 청년층)에서 시작해 5포(내 집 마련, 인간관계), N포, 다포 등 한 세대에 이름을 붙여 모든 청년들을 정의해 버리는 것은 청년세대 내부의 이질성이라는 객관적인 현실을 뭉개 버린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삶의 문제는 세대적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가치관, 삶의 전략, 한국 사회의 특수성 등이 교차하는 곳에서 생성되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청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주하는 시대 질서로 본다. <88만원 세대>가 출간된 이후인 2010년대에 유행한 청년 세대 명칭들(3포, 7포, 다포, N포)은 주로 청년세대의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의식을 낳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세대 내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신광영, 2009, 김선기, 2019 재인용)”.

김선기(2019)는 세대 담론은 실제 세대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3포세대’라는 담론이 청년세대가 실제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당사자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혹은 ‘하지 않는 것’을 ‘선택’ 했는데도

그 행위를 포기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정책은 '정상적인' 생애 과업들을 실행하도록 유도할 것이 아니라 청년 각자의 욕구를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선기, 2019).

같은 맥락에서 정병은(2017)은 3포세대 담론에 대해 "청년들은 스스로를 사회적 관습에 맞추는 것보다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못하게 돼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 중에서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예전에는 3포를 하지 않았다면서 비혼을 선언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서적 차원에서의 친밀성의 편안함이나 안정감, 소속감 등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임국희(2020)는 2010년에 대두된 '비연애 담론'을 이성애 연애에 대한 거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족규범과 표준화된 삶 자체를 비판하는 흐름으로 분석하며, '4B(4非,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실천하는 그동안의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젊은 여성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연애를 거부하는 것을 맥락화 하는데 다소간 실패했다고 말한다. 임국희(2020)가 담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계간홀로>라는 독립 잡지는 '비연애'에 관한 글을 꾸준히 생산한 곳으로, 여기서 나타난 2010년대의 친밀성의 변화의 핵심요소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 성찰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2000년대의 '3포 담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과도 구별된다.

임국희(2020)는 여성들이 '비연애' 담론의 배경으로 1) 노동중심의 생애 전망과 기존의 이성애 연애각본이 양립 불가능 하다는 점, 2)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성과 안전한 개인에 대한 열망, 3) 표준화된 생애주기의 관문으로서 연애 비판을 꼽는다. 한국 사회의 젊은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노동을 두고 경제적 성취를 당연시한다. 그런데 이성애 연애 각본은 젊은 여성들에게 기존의(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조신한) 여성성을 환기하는 장소가 된다. 이 때문에 여성들에게 연애란 성공을 지향하는 자아 추구에 걸림돌이자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비연애 담론은 단순히 이성애 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생애전망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임국희(2020)의 연구는 표준화된 생애과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열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지만, 담론분석이라는 방법론의 한계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젊은 청년 주체의 목소리를 직접 담지 못했다.

### 2.3 청년과 젠더

청년 세대 내부의 다양한 생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배은경(2009)은 경제위기 이후의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시도한다. 저자 또한 앞선 비판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청년 세대 담론이 청년 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젠더관점에서 개인적 생애사들의 차이를 탐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일한 '청년'으로서의 세대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계급이나 젠더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섹슈얼리티 또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부분의 세대론에서 청년의 위기 혹은 청년의 증상으로 운위되는 현상들이 현대 사회의 표준화된 남성 생애 달성의 어려움[15]을 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청년 문제'라고 하면 취업난에 처해 있는 젊은 남성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성별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적 젠더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은 젠더질서를 재구성하고 있는데, 근대적 젠더관계에 입각한 남성성의 표준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청년(남성)'의 위기로 표상한다.

생애가족임금을 전제로 하는 '1인 생계부양자'와 '근대적 핵가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대체할 대안적 남성성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변화하는 젠더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인됨(adulthood)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 생애주기의 정상성 해체만을 청년의 문제로 상정하는 기존의 청년 담론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남녀 갈등을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분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거 현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따라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벗어나 새로운 남성성 개념 형성의 단서를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제 3 절 이론적 자원

[15] 3포, 5포, 7포 세대 담론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절박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연애나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재현된다. (배은경, 2015)

본 논문은 '동거'라는 현상의 바탕에는 개인화라는 사회변동과 한국의 사회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근대 사회에서의 법제화된 가족 구성의 형태들이 아닌 방식으로의 친밀성이 추구되고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는 개인화 현상은 서구 사회든 한국 사회든 많이 나타나고 있는 범세계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개인화 이론을 가지고 가족이나 저출산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16]. 그런데 '동거'는 그동안 '가족 연구'로서 충분히 수행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화 이론을 동거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는 것은 가족의 개념에 대해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분석적 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 청년들의 동거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개인화와 '세대론'을 결합한 연구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청년들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에는 사회구조적 힘이 분명 작동한다. 이들의 삶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영위되지 않으며,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인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동거커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노동 시장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명령들 속에서 친밀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수많은 갈등과 성찰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가족의 탈신비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생애과정이나 가족 경험의 다양한 경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개인화 이론은 가족 구성의 근대적 형태가 아닌 새로운 친밀성의 방식이 추구되는 변화들과 그 변화의 주체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화 개념을 중심으로 청년 동거커플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이상적 가족 개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울리히 벡과 벡 게른샤임(1999, 2002)이 펼친 서구 사회의 개인화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 논의된 개인화 담론들과 그 배경에 관한 지형을 검토한다.

### 1) 서구 사회와 개인화

벡과 벡-게른샤임(2002)은 후기 근대 이후의 삶의 양식이 개인화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산업사회 이후 사회구조 변동이 있다고 말한다.

[16]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終焉)? :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개인의 생애 주기가 전통적 모델을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개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일대기는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계획되기 시작했고, 생애 과정에서의 선택들이 모두 개인 단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개인이 일자리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한 '이동성'을 요구받는 동시에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사회적 헌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한다.

일터는 경쟁력을 갖춘 개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별 분업, 가부장적 가치에 기초한 핵가족 체제와 같은 근대적 가족 규범은 점점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개인화 현상은 가족의 통합을 저해하며 모든 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그 결과조차 개인의 선택인 것으로 여겨진다(벡-벡 게른샤임, 2002). 벡-게른샤임(1999)은 이러한 개인화 흐름에 따라 개인적 일대기가 거의 없었던 확대가족이 가장 먼저 붕괴되며 한 가정 안에서 남성이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남녀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17].

울리히 벡(1999)은 수십 년 간의 서구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여성들을 전통적인 임무로부터 해방시킨 사회적 변화를 '인구학적 해방', '보상받지 못하는 가사노동', '피임법 개발', '이혼율 증가',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들'이라는 다섯 가지로 요인들로 정리한다[18].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부양을 받지 않는다 해도 경제적 보호조치에 크게 의존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 출산이 격심한 생존 경쟁을 피하기 위한 매력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배우자로부터의 자유와 직장을 가질 자유 사이의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모순적인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정을 요구받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가져온 개인화라는 맥락은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젊은 여성들에게 개인화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노동 시장의 폐쇄성, 가족 내의 일들이 가져다주는 부담을 의미하는 반면, 젊은 남성들에게 개인화는 경제적 독립과

---

[17] 벡-게른샤임(1999)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3단계로 설명한다. 1단계는 가족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구성되어 남녀 어느 쪽도 개인적 일대기를 갖지 않았다. 2단계는 '확대가족'이 붕괴되며 남자들이 그들의 삶을 꾸리는 데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가족의 응집력은 여성 권리의 희생을 대가로 유지되었다. 3단계는 1960년대부터로 보는데, 남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축복과 짐'을 부여받았다.

[18] 저자는 기대수명 증가로 여성들의 '모성적 의무'가 끝나는 45세 이후의 삶을 '빈 둥지'라 표현한다. 또한 가사노동의 탈 숙련화와 교육 기회의 평등화로 여성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동기가 되었고, 피임법과 낙태의 허용으로 출산 또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혼 법률의 정비로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빈곤 탈출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가족생활이 서로 대립하는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양립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즉 젊은 남자들에게 개인화란 (취업 시장에서 밥벌이를 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남자다움의 방향을 따라 행동하게 만들었다(울리히 벡, 1999).

울리히 벡(1999)은 '성적 불평등'은 피상적 쟁점이 아니며, 가정 안팎의 노동에 대한 산업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녀갈등은 단순한 전통의 잔재가 아니라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성역할이 구분되어 형성된 전통적 핵가족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에게 일상의 허드렛일을 분배하는 만성적인 문제조차 직업에 따른 이동성에 영향을 받는다 점을 예시로 들며 사회구조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남녀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 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인화의 맥락은 '사랑'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래의 가족 형태에 대해 울리히 벡(1999)은 특정한 유형의 가족이 기존 유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란히 병존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개인화로 인해 옛날 식의 함께 살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 동거를 유력한 대안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동시에 독립적으로 되는 것,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이상으로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울리히 벡, 1999).

### 2) 한국 사회와 개인화

이처럼 개인화는 사회 변동과 맞닿아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개인화 담론 또한 가족형태나 초저출산 현상, 만혼, 비혼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배경으로 등장한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인화에 대해 살펴볼 때는 그 고유한 역사·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화 개념에 대한 분석의 틀이나 초점은 연구자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장경섭(2018)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초저출산 현상, 만혼, 비혼, 해혼(이혼), 별거 인구의 지속적 증가, 고령화, 독신가구 급증 등의 변화에 대하여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19]" 라고 개념화한다. 서구 사회의 경우, 거시적

[19] Chang, K-S. (2014).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Compressed modernity and obfuscated family crisis in East Asia. In E.Ochiai & H. L. Aoi (Eds.),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pp. 37-62). Leiden, NL: Brill

경제・사회・생태 질서의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족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고, 이러한 현상이 흔히 “개인주의화”(individualization)의 진행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 비혼, 만혼화 현상 등 일견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가족의 의미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서구는 사회복지의 진전 때문에 전통적 가족형태가 해체된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변화는 같은 맥락에서 개인주의화로 보기 어렵다.

장경섭(2018)은 한국인들의 개인화는 “가족(자유)주의적 압축근대성의 지속 및 이러한 가치・태도와 현실 사이의 상충과정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N포 세대조차 개인주의화 되었다기보다 주거나 고용과 같은 압박 속에서 가족 형성이 어려워진 현실 때문이라 지적한다. 이를 ‘가족주의적 개인화’ 현상이라 개념화하는데, 이는 가족생활보다 개인주의를 더 선호해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혼인과 출산을 당연시 여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역설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개인화 현상이 경제적 압력에 의한 변화일 뿐 문화적・담론적 변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의해서 지지받고 있다[20].

또한 장경섭(2009)은 사회재생산의 위기와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가 가능했던 것은 일종의 개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위험관리의 노력으로서 전개된 것이라 본다. 즉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고, 자녀 수를 줄이고, 별거나 이혼을 감행하는 가족 축소 행위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가족피로'의 누적에 반응하여 가족의 '실효범위(effective scope)'를 축소시키는 시도인 것이다[21]. 즉 한국 사회의 개인화 개념은 개인들의 삶의 양식이 개인주의로 변화했다기 보다는 가족피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부터 탈출한 것이다. 그러한 가족피로는 주거나 고용의 압박,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찬숙(2017)은 앞선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를 동북아 가족주의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 동북아가족주의란 “개인주의 규범에 근거하여 각 영역마다 자율적 원리를 갖추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서구의 사회원리에 맞서서 근대화의 방향을 조율하는 동북아식 사회원리”로 이것의 핵심은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 가치로 설명하고

[20] 김혜경, 2013; 심영희, 2011; 장경섭, 2018; Chang and Song, 2010, 임국희, 2020, 144
21 저자는 '시장화 된 개인화'의 징후들로 출산율/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이혼율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사회를 공격하거나 스스로를 가해하는 절망살인 현상을 든다.

있다[22]. 홍찬숙(2017)은 한국 사회 개인화의 특징을 산업화 과정에서 활용된 유교가족주의와 그 변화로부터 찾는다. 산업화의 특징, 가족과 기업의 관계가 특정한 개인화의 양상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이 전일제 노동시장 경력에 기초하여 '개인화 제1단계'(핵가족 중심주의)에서 '제2단계'로 가족의 탈제도화를 주도한 반면(벡, 2013, 홍찬숙, 2017 재인용), 현대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족행태의 개인화는 비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효'의 의무가 약화되면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 중심주의('개인화 제1단계)가 강화되는 현상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족행태의 개인화'는 서구와는 차별화되는 한국의 독특한 추세로 이해된다.

특히 연구는 산업화 이후 증대된 개인화 욕구를 여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이들은 '가족을 위한 존재' 라는 전통적 성역할보다 '자신을 위한 삶' 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다(벡-게른스하임, 2000, 홍찬숙, 2017 재인용). 이처럼 서구사회는 개인화 과정에서 '노동시장 개인주의' 대 '가부장적 가족'이라는 제도가 충돌했지만,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가족주의 '제도'와 (가족형성을 미루는) 개인화한 가족 '행태'가 충돌한다. 청년들이 대안적 생활을 시도하기보다 일방적인 포기나 지연이 더 쉽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 뿐 아니라 가족 영역까지 장시간 노동체제를 요구하는 와중에 개인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기의 대상이란 가족을 구성하려는 시도 자체를 의미하기보다, 유일한 안정망으로서의 가족으로 여겨지던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내재된 전통적 가족주의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을 형성하여도 개인 중심이 되면 가족 자체가 개인들을 존중하고 개인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찬숙이 말하는 가족주의와 개인화의 충돌의 결과는 탈가족화라기보다 노동시장을 포함한 탈제도화가 더 적합한 표현이 되며, 여성들의 내면화된 "가족가치의 내용과 무관한 구조적 현상" 이 된다.

이러한 탈제도화 현상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 불평등한 성역할 규범은 가부장적 집단주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22] 가족 개인화의 특이성을 여성들에게 강하게 내면화된 유교가족주의 때문으로 보고, 개인화를 원하지 않음에도 경제위기에 따라 개인화가 강요되었을 뿐이라는 것 (장경섭/송민영, 2010, 홍찬숙, 2017 재인용)

따라서 노동시장 경력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가족 '생활'이 아니라 '생활'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독신이나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홍찬숙, 2017). 고학력 여성에 대한 제도결혼의 구속력은 특히 강하며 전통적 가족 의무 중에서 부계 부모 부양이나 남아선호와 같은 '효' 핵심은 탈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23]. 또한 부부관계에서 불균등한 성역할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자녀교육의 의무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홍찬숙, 2017). 이를 '핵가족화+1인 가구 증가 및 초저출산'의 특징을 보이는 '압축적 개인화'라고 표현한다(홍찬숙, 2015, 홍찬숙, 2017).

신경아(2013)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적합한 개인화 개념으로 '시장화된 개인화 '를 제시하며 개인화의 고통이 커졌음에 집중한다. 그 고통이란 한국이 서구 사회처럼 복지국가체제를 경유하지 않고 국가주의에서 시장 중심 사회로 탈바꿈해 오면서 개인들이 사회적 보호장치 없이 시장의 경쟁과 압박에 내몰리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서구 유럽사회에서 노동시장과 복지체제 등 각종 제도에 개인 개인의 의존도가 높아진 '제도화된 개인화' 현상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적 보장체제가 극히 취약한 조건에서 결혼은 점점 더 부담이 되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가족화와 부부중심성 강화,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 약화, 개인의 독립성 증대 증 가족의식과 규범의 변화이면서 가족을 구성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신경아, 2013).

이처럼 장경섭(2018, 2009)과 홍찬숙(2017) 그리고 신경아(2013)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동북아 가족주의와 압축적 개인화', '시장화 된 개인화'등의 개념화를 통해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과 가족생활의 변화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 모두 개인화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개인화가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않은 채 개인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가족의 의미를 사회체제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 체제란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 가족 이념을 의미하는데,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 체제가 작동하고 있어 개인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와중에 개인화는 진행된다. 다음으로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의 가족 행태의 변화와 개인화를 연결시킨

[23] 홍찬숙(2017)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한국・일본・중국・대만 4개국에서 부모 부양 의식이 가장 전통적이다. 부모 부양의 측면에서 한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효' 의무가 규범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송인하 · 임춘희(2014)는 사람들은 동거를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결혼자체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일, 가족, 여가, 경제 그리고 성 역할 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송인하 · 임춘희, 2014). 서구의 "개인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송인하 · 임춘희, 2014)"의 경우 전통적 결혼제도가 규범적 가치로서 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치 못해 결혼이 개인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구 사회는 개인화라는 흐름 속에서 개인주의 증가와 탈제도화가 일관성 있게 함께 간다.

그러나 한국은 산업화가 뒤늦게 진전되어 산업화에 따른 성 역할 분업체계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공동체적 가족이념, 가부장적 가족이념 그리고 개인화된 가족이념 등이 공존하게 만들어 개인들은 선택에 따른 갈등을 경험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산업화와 젠더혁명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개인화된 젠더 평등적 가족 이념이 이행되었지만, 동양사회는 뚜렷한 가족이념이 나타나지 않고 '가사분담에 있어서의 공평'이 실천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성 역할 불평등이 지속되면서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서구에서 동거는 자연스럽거나 전통적 결혼의 대안으로서 수용되었지만, 동양에서는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제재도 존재하는 것이다. 즉 동양의 가부장적 가족이념은 서구로부터 전파된 젠더평등 가족이념과 경쟁하며 존재하게 되었다. 송인하 · 임춘희는 결혼과 가족을 중심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적 체제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전통주의적 가족주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동거의 경우에는, 유교적 가족주의와 연결된 젠더 불평등이 작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가사분담의 공평성 실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것이 동거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정병은(2017)은 청년들의 친밀성 유형 중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담론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개인화로서 사회변동과 전통적 가족제도, 그리고 생존주의를 꼽는다. 취업과 결혼 등의 생애사건을 앞둔 청년들이 신자유주의 흐름(복지체계 후퇴, 불안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존에 급급하게 되는 개인화 과정을 겪으며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우선적 과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일상이 경쟁이 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불안한

현실을 오롯이 '자기책임'으로 돌리며 경쟁적 일상 속에서 효율적인 자기계발의 가치를 내면화 한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도구적 가족주의가 부과하는 책임감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은 '친밀성'의 측면보다 '책임성'의 측면이 개인의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정병은(2017)은 생애과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탈표준화', '탈구조화'로 정의한다(전상진/정주훈, 2006, 정병은, 2017 재인용).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결정권자로 등장하게 되는 '가족 사업'으로서의 전통적 결혼과 가부장적 가족제도 또한 청년들을 3포로 떠미는 요인이 된다. 결혼은 집안 간의 결합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강하며, 중산층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강력한 규범과 통제를 행사하고 일상을 규율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결혼은 청년들은 진정한 관계를 억압할 수 있다. 또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경제적 진출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가족제도 안에서의 가부장적 현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경제 불황과 취업난 속에서 가족부양의 전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남성들에게도 결혼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정병은, 2017).

전영수(2020)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를 넘어서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늘어나고 있고, 가족과 관련된 행태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자유와 가족에서의 기능을 함께 설명하는 전영수의 시각은 따라서 동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전영수(2020)는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결합과 해체가 가능한 가족 형태를 '테트리스 가족'이라 명하며 이를 가족과 개인이 대립된다고 하기 보다는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 속에서 청년들의 가족행태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본다. 여기서 변화란 결혼을 통한 가족 기능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는 동거와 같은 대안 가족 형성을 의미한다. 전영수(2020)는 특히 결혼이 없으면 가족도 없다는 논리를 청년들이 불편해한다며 결혼이 저지됐다고 가족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전영수(2020)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각자도생의 사회란 앞서 살펴본 개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저성장(경제구조)·성평등(사회인식)[24]" 이라는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가족 재구성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내재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태도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요즘 세대들에게는 충분히 자생적인 의미로 본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각자도생의 상황에서 자신의 행복과 자율성,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이기성의 발로"가 아닌 "이타성의 실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본인 중심의 기능과 역할 조정으로 전통적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가족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대안적 삶이 "테트리스 가족"이다.

테트리스 가족은 다각적인 가족 조합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는 혈연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간편한 생활이 얼마든 가족 기능을 품어 안을 수 있다고 보고, 본인 효용을 가족 희생보다 중요시한다. 테트리스 가족은 1인가구, 평생 비혼 등 필요에 따라 그 조합이 무궁무진하고 세분화되지만 '혼자이되 함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은 같은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생활방식'이다. 이러한 추세는 동거에도 적용되는데, 동거를 한다고 해서 꼭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혼전 동거를 넘어 비혼 동거가 확산된다. 또한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는 여성들에게는 동거가 법적 결혼의 단점을 능가할 가능성이 많다(전영수, 2020).

전영수(2020)는 각자도생의 사회에서는 불안한 일자리와 거주 현실로 인해 경제학적으로 결혼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청년들의 모든 선택을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설명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동거와 같은 저비용·고만족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게 된다.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때로는 상생적이며 갈등적 공간이 될 수 있다. 효도의 개념조차 청년들이 표준적 삶의 경로를 이탈하며 바뀌게 된 것이다. '졸업→연애→결혼→출산→양육'이라는 표준적 생애주기를 따르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설득하는 탈제도화의 실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전영수, 2020).

이상 이론적 자원에서 언급된 '탈가족화', '탈제도화',

[24] 전영수(2020)에 따르면, 1990년대 연구에서는 성 역할과 관련돼 가부장·남성중심적 가치관이 평등하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한다는 데 무게중심이 실렸고,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논쟁의 결과물로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등장한다.

탈표준화’, ‘탈구조화’ 등의 표현들은 개인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라는 동일한 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다. 각각의 용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청년들의 동거 현상에 한해서는 큰 맥락에서 비슷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탈제도화’를 핵심 용어로 택하고자 하는데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기존의 제도를 벗어나 있는 동거를 통해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족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탈가족화의 경우 돌봄이나 부양 같은 부담을 떠안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탈피해 버린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가족행태와는 다르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구성의 시도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표준이라고 보기에는 동거는 이전부터 존재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기능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생활 자체는 개인주의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탈제도화’가 개인주의적 가족생활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용어로 판단된다.

## 제 4 절 연구 목적

동거 중인 청년들은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일례로 예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늦추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일반적 규범에 맞는 결혼 관계라 생각을 한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동거 중인 커플도 결혼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인식한다.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두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혼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간다. 가족의 정상성에 관한 담론은 그러한 ‘생애주기’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여러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삶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많이 모호해진 동거와 결혼의 경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삶의 문제가 단순한 세대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화라는 사회변동, 젠더, 계급, 가치관, 한국 사회 규범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 세대 내부에서도 친밀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동거커플과 같은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이질성을

가시화하려 한다. 또한 성인기 생애 상의 과업처럼 여겨진 법률혼을 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거하는 청년들의 선택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동거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생애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려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성의 결혼제도에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이성애적 결합관계[25]로 친밀성을 지속해 나가는 2030의 경험들을 보고 이를 범세계적인 개인화 현상과 세대론을 가지고 젠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친밀성 유형 자체의 다양성 뿐 아니라 동거커플 관계 내부에서도 섹슈얼리티에 따라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화와 세대론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젠더 관점을 통해 바라봐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일상적 삶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섹슈얼리티에 따라 상대에 대한 감정, 가치관 등의 변화는 다르게 겪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 세대 내부의 다양성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 질문은 세 가지다. 친밀한 관계와 다양성에 관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동거의 구체적인 경험과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탐색적인 질문들이다. 첫째로, 청년들이 실제 동거를 통해 관계 내부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거의 계기부터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까지 살펴보고, 동거 친밀성의 경험과 양상에 대해 알아본다.

둘 째로, 동거라는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이해하는 결혼과 동거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하여 어떠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동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률혼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만, 동거 관계 내에서 구속과 자유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그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법률혼 중심의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동거 관계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 그러한 당사자들의 인식이 친밀한 관계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셋 째로, 본 연구는 동거의 '가족'으로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본다. 동거 경험이 어떻게 친밀성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연구참여자들이 친밀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25] 송인하 외, "지속성을 갖는 동거 관계에 대한 이상형적 이론구성". 2014

살펴보고, 그 변화에는 어떠한 성찰적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의미가 사회학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탐구해볼 것이다. 이는 동거를 체험한 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 녹아 있는 친밀성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점검하고 현실을 진단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제 5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제 동거를 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는 질적 연구 방식을 선택했다. 연구는 최소 6개월 이상 동거를 지속한 20~30대 남성 및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한정했고, 총 20명(여성 10명, 남성 10명)의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 초반에 앞서 진행한 10명(여성 5명, 남성5명)의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필자는 동거 커플들의 가족 관념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결혼 의사가 없었으나 동거를 하며 결혼을 결심하는 커플의 경우도 있고, 자연스레 시작된 동거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유지시키고자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또 동거를 경험하고 이별 후에도 다시 한번 동거를 신중히 계획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사례도 보았다.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동거를 경험한 이들, 즉 과거 동거 경험이 있거나 면접 당시 동거 중인 청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연구참여자 모집 기준을 최소 6개월 이상 동거를 지속한 20~30대 남성 및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발적 의사를 밝히고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총 21명 (여성 11명, 남성 10명)이었다. 또 연구참여자 내에서 서로 커플인 경우는 없다. 면접 당시 동거 경험 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다양했다. 연구참여자의 식별코드는 앞자리를 각각 F(여성), M(남성)으로, 하이픈(-)으로 구분한 뒷자리는 면접 진행 순서에 따라 분류해 표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현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 연구 참여자 속성

| 코드 | 횟수 | 동거기간 | 면담 시점 | 면담 방식 | 생년 | 직업 |
|---|---|---|---|---|---|---|
| F-1 | 2 | 2년, 2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90 | 헤어디자이너 |
| F-2 | 1 | 3년 | 동거 후 결혼 | 면대면 | 1991 | 약사 |
| F-3 | 1 | 3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90 | 자영업 |
| F-4 | 1 | 6개월 | 동거 중 | 온라인 | 1991 | 연구원 |
| F-5 | 2 | 1년, 1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90 | 프리랜서 |
| F-6 | 1 | 4년 | 동거 후 결혼 | 온라인 | 1992 | 학원강사 |
| F-7 | 1 | 1년 | 동거 경험 | 면대면 | 1993 | 구직 |
| F-8 | 1 | 1년 | 동거 경험 | 온라인 | 1996 | 대학원생 |
| F-9 | 2 | 4년, 4년 | 동거 경험 | 온라인 | 1991 | 대학원생 |
| F-10 | 1 | 5년 | 동거 중 | 온라인 | 1993 | 프리랜서 |
| M-1 | 2 | 2년, 1년 | 동거 경험 | 면대면 | 1988 | 회사원 |
| M-2 | 1 | 2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89 | 회사원 |
| M-3 | 1 | 1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89 | 회사원 |
| M-4 | 1 | 2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91 | 회사원 |
| M-5 | 1 | 2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93 | 회사원 |
| M-6 | 2 | 1년, 1년 | 동거 경험 | 면대면 | 1998 | 대학생 |
| M-7 | 1 | 6개월 | 동거 중 | 면대면 | 1998 | 중개업 |
| M-8 | 1 | 1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93 | 대학원생 |
| M-9 | 2 | 1년, 1년 | 동거 경험 | 면대면 | 1989 | 휴직 |
| M-10 | 2 | 2년, 2년 | 동거 중 | 면대면 | 1990 | 자영업 |
| Q-F | 1 | 6년 | 동거 경험 | 면대면 | 1990 | 회사원 |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과 남성의 젠더 경험이 친밀성 안에서 다르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동수(여성 10, 남성 10)로 맞추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논의 형성을 위해 퀴어 여성(Q-F) 한 명도 심층면접 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의 경우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커플로 인터뷰를 하기보다 연구자와 1대 1로 면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동거 중이 아닌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1대 1 방식으로 면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20~30대 청년들로 제한을 두었다. 연구자는 앞서 서론 및 선행연구에서 밝힌 법률혼에 기초한 사실혼 개념과 본

연구에서 동거의 정의를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동거라는 현상의 동시대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상 결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나이 대의 사람들은 연구에서 제외하고 미혼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최대한 연구 대상자로 수집했다.

또한 본 연구는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청년 세대의 동거 경험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중 연인관계가 아닌 일반 공동 주거와 같은 비혈연 공동체 형태로 동거하는 사람들은 연구참여자에서 제외한다. 연구 목적, 공통 질문 및 취지를 포함한 동의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연구참여자에서 제외한다. 심층면접 진행 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연구참여자에서 제외했다.

###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세 가지 단계로 수집되었다. 먼저, 연구의 착수에 앞서 연구자 주변의 청년들 중 동거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면담을 진행했다. 파일럿 면담을 실시한 이유는 동거 경험이 있는 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파일럿 면담을 통해 필자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이 동거 경험을 말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필자가 질문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먼저 이야기를 꺼내 놓는 정도로 참여자들은 면담에 적극적이었다. 다른 동거 커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연구 결과를 꼭 공유해달라는 사람도 많았고 이러한 파일럿 면담 과정을 통해 필자는 참여자들에게 추가 질문을 언제든 할 수 있을 정도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파일럿 면담에서 실시한 자료들은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파일럿 연구대상자 중에 앞서 밝힌 기준을 충족하는 5명을 1차 면담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면접을 완료한 5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들 연속적으로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기법을 활용하였다(Biernacki and Waldorf, 1981).

본 연구는 참여자 별로 각 1회씩 60~90분가량의 반구조화 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필요시 2차 면담 혹은 짧은 온라인 면담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에 활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와 기존 이론들을 참고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동거에 대한 기초 사실들을 포함하여 동거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해결방식, 주변에 공개 여부와 그 이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사, 가족의 의미, 동거의 장/단점 및 자신에게 미친 영향 등을 포함하였다 (<부록-1> 참조). 이러한 질문들은 질문지 상에서 번호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을 듣고 연구참여자들의 동거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사회적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방형 질문을 추가했다.

더불어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거나, COVID-19 관련 방역상의 이유로 면대면 면담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화상면접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면담을 진행한 사례는 총 6건이며 나머지 16건은 면 대면으로 실시되었다. 화상 면담 시에는 녹음은 별도의 장치(휴대전화)로 하고 영상은 녹화하지 않았다. 이 또한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구했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의 이론적 기반과 방식을 따른다. Creswell(n.d./2018, p. 102)은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확인하여 그 본질을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동거를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청년들의 생생한 체험을 탐구하여 그러한 경험의 본질과 각자의 대처 전략들을 기술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거라는 개인들의 공유된 경험을 이해하고 동거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에 관한 의미와 관념, 인식 등에 관한 상이한 관점들을 동거라는 현상을 통해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본 연구가 실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자에게도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실천적 목표 또한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면접을 통해 얻게 된 녹취록 자료를 수 차례 통독하여 동거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체크했다. 각 문장들을

공통된 주제로 모은 다음에는 공통된 주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려 했다. 다음으로 녹취록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의 목록을 만들어 '주제(의미 단위)'로 묶었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코딩으로 중복되고 반복적인 진술을 제거하면서 진술들을 주제 단위로 묶는 의미군(clusters of meaing) 단계에 해당된다.

텍스트 자료에 대한 코딩 작업은 총 43개의 개념들을 도출해냈고, 필자는 이를 추상화하여 총 6가지의 범주/주제를 정리하였다. 추출된 개념들 사이의 공통의 주제는 '동거 계기', '현실적 문제', '사회적 인식', '이별의 어려움', '동거의 효과', '친밀한 관계'의 총 6가지다. 도출된 개념과 주제는 아래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 도출 개념 및 주제**

| 개념(concept) | 주제(theme) |
|---|---|
| 자취, 편의, 치안/위험 | 동거 계기 |
| 생활패턴, 수면시간, 기질, 개인 시간/공간, 가사분담, 경제적 분담, 반려동물, 책임, 갈등 | 현실적 문제 |
| 낙인, 일탈, 부정적 시선, 편견, 부모님, 세대차이, 심리적 부담, 결혼 | 사회적 인식 |
| 짐 정리, 구속, 속박, 심사숙고, 불안 | 이별의 어려움/쉬움 |
| 안정감, 편함, 대화, 고민, 의지, 추천 | 동거의 이점 |
| 이해, 배려, 양보, 포기, 희생, 신뢰, 약속, 완전한 정보, 성찰, 깨달음, 관계의 깊이, 발전 | 친밀한 관계 |

이러한 개념과 주제들을 토대로 연구참여자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관한 조직적 기술을 먼저 하고, 그 경험에 미친 외부 요인들에 관한 구조적 기술을 했다. 먼저 2장에서는 동거에서 경험하는 친밀성에 대해 다른다. '동거 계기'와 '현실적 문제'그리고 '친밀성의 경험과 양상'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기술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동거의 지속성', 그리고 '이별의 어려움'을 통해 현재 한국의 사회적 맥락이 동거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동거의 이점과 대안적 생애과정의 모색을 통해 동거 '가족'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2장과 4장은 개인화 이론과 관련한 조직적 분석이 주로 이뤄지며, 3장의 경우 한국가족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동거라는 특정 맥락에 집중하여 최종적으로 동거의 본질을 통합하고 참여자들의 환경을 이해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이렇다. 먼저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동거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그동안 비가시화 되었던 청년들의 내밀한 삶의 이야기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 세대론을 젠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청년 세대 내부의 이질성과 섹슈얼리티에 따른 입장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거 현상의 배경에는 개인화라는 범세계적 흐름이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 동거 관계의 경험들을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동거 경험이 가족에 대한 상상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동거 현상 자체뿐 아니라 가족의 다양성 자체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제 2 장 동거에서 경험하는 친밀성

## 제 1 절 동거의 시작: '그냥 자연스럽게'

> 사귀는 이유가 뭐에요 **같이 있고 있는게 좋으니까** 사귀는 건데, **동거하면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M-6)

동거는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 면접 결과, 동거의 계기는 연애과정에서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시작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우연한 것으로 경험되었다. 20명의 연구참여자들 전원은 그들의 동거가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고 답변했으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동거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는 동거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동거

사유와 관련하여 1순위 응답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17.3%)'로 가장 높았다.

> 그냥, 제가 자취를 하고, 그 친구는 집이 ○○인가 그런데 (...) 그렇게 같이 데이트하고 집에서 놀다가 자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살게 돼서 (...) 제가 살던 집에 남자친구가 자주 놀러오다가 (...)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깐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26]... (F-1)

> 여자친구는 제가 이사할 때쯤에는 따로 원룸이 있었어요. 근데 집을 거의 안 가고 짐을 거의 제 집으로 옮기고, 같이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 **누가 '오늘부터 동거하자' 이렇게 하겠어요** (웃음) (M-2)

이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동거의 시작은 청년 세대가 대부분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동거를 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심한 3포(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세대, 4B(4非,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 담론 등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동거 시작을 위해 사전에 상호간 뚜렷한 경제적 합의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연애 상대가 좋아서 같이 지내다 보니 시작되었다고 대답했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이 친밀성을 포기하고 있다는 기존의 청년 세대 3포, N포, 4B 담론과는 매우 이질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의 가족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개인화 현상 또한 '가족주의적 개인화'로 개념화(장경섭, 2018) 되었다. 그런데 동거는 전통적인 생애과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족주의와는 거리감이 있다. 또한 동거는 사회적 지지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동거의 의미는 결과 그 자체로서 방치하기 보다 조금 더 복합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기존의 논의는 동거를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와 '결혼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구분했는데,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이러한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아무런 고민없이 동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고, 결혼 계획을 가지고 동거를 선택하거나 비혼주의자로 동거를 하게 된 경우, 동거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경우 등 다양했다. 어떤 사례 건 간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26] 인용문에서의 볼드체는 연구자의 강조입니다.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 일단은 **원래 제가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만난 사람 중에서 (파트너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일주일의 절반정도 먼저 (동거를) 해보자. 이래서 반동거를 했다가 동거로 된 거죠. (F-10)

오히려 동거 계기는 연애하는 상대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하게 되었다는 게 대부분이었다. 커플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한 명이 가끔, 자주, 매일 방문하다가 동거가 시작되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가 더 가깝다는 생활의 편의도 동거의 계기에 포함되었다.

> 그때는 진짜 현실적인 고려 없이,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F-8)

> 저는 원래 청량리 쪽에 혼자 살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망원 쪽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같이 있는 게 헤어지는 것 보다 좋으니까** (동거를) 시작하게 된거죠. (M-10)

>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 계속 오빠네 집에서 지내다가 (...) 뭐 **뭐 2~3일** 집에 갔다가, **4~5일** 갔다가, 뭐 7일 이제 같이 있게 된 거라. (F-2)

> 마지막 학기 때는 (· · ·) 실습 같은 거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빠 집 주변으로** 실습지 정해져가지고 (· · ·) 실습 같은 거 하면서는 계속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F-2)

커플들의 동거는 현실적 요인도 물론 존재했다. 함께 있고 싶은 욕구에 현실적 측면의 요인들, 가령 사는 곳의 치안이 안 좋다든지 학교나 직장이 가깝다든지 하는 조건이 더해질 때 자연스러운 계기로 동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동거가 의식적 결단보다는 '미끄러지듯 자연스러운(sliding into cohabitation)' 계기로 시작된다는 기존의 문헌들(Manning and Smock, 2005; Stanley et al, 2006)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이들에게 동거의 선택은 개인적 일대기로서의 탈제도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동거의 시작에 있어 주목할 점은, 동거커플들이 현상유지에 대한 소망을 가진 채 동거 관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희망을 가진 채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며

친밀성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과 배척된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가 동거로 인해 심화되는 과정을 피하거나 포기하기 않았다.

관련하여 임국희(2020)의 연구는 '비연애' 담론이 "단순히 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생애전망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열망"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현실의 일부만 반영된 주장이다.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방식에는 '비연애'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거 형태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동거 커플은 법률혼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친밀성을 포기하지 않고 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간의 끊임없는 행동 조율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청년세대 내부에도 수많은 세대 단위가 존재하고 있다.

> 그 당시에는 헤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랑 얼마 전에 이별을 하긴 했는데, **헤어질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는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F-2)

> 그냥 무조건, 그니까 **우리는 쭉 갈 수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F-2)

즉, 동거의 시작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관계의 끝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관계가 (그것이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동거 관계에 진입했다. 즉, 연구자가 본 동거 커플들은 그들의 관계가 지속성을 전제하고 서로의 미래를 공동으로 기획하려 했다.

이처럼 동거의 '자연스러운' 시작의 의미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청년들의 열망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유대는 동거의 계기를 질문하였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될 정도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욕구는 청년들에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삶의 중요한 가치다. 이처럼 개인화라는 사회변동의 흐름 안에서 청년들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 일대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만혼화나 비혼담론 등의 결과론적, 부분적 해석만으로 실제 현실의 모습을 다 담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제 2 절 현실적 문제들과 갈등

동거가 시작되면, 커플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한다. 동거 또한 생활패턴, 가사분담, 개인 시간 등 여러 갈등의 계기를 제공하며, 관계의 지속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동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가장 큰 차이로 '함께하는 시간이 현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꼽았으며, 이로 인해 일상의 마찰을 훨씬 더 많이 겪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동거 실태분석연구(김영란 외, 2021)에서도 최근 1년간 파트너와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이 '있음'에 대한 답변이 67.0%로, 법률혼 부부와 비교하여 갈등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27].

타인과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동거라는 삶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개인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에게 커다란 변수가 된다. 대학생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본인과 파트너가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적 습성의 차이나 직장의 특성에 따라 생활패턴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연애 과정과 달리 같이 보내는 시간이 현격히 증가하며 동거는 일상생활 속 마찰을 빚어내는 결정적 기반이 된다. 수면시간 등 각자의 생활패턴과 개인적 기질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이어졌다.

>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가지고** 둘이 (…) 수면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M-3)

> 그 친구는 쉬는 날 거의 하루 종일 자니깐. 저는 잠을 엄청 그렇게 많이 자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예전에 같이 살았던 친구는 **그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F-1)

> **퇴근을 12시, 1시에 하는데** 집에 오면 불을 켜야 하잖아요. 원룸이니까 화장실 불만 켜는데 그것도 여자 친구는 밝다고 예민하니까 (M-5)

수면 시간과 관련된 생활패턴의 차이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

[27]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동거에서의 갈등이 더 빈번한 이유를 법률혼에 비해 관계의 안정성이 약하고 헤어짐이 쉽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런데 필자는 동거 관계에서 안정성이 법률혼보다 약한 이유에 있어 동거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보다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는 점에 더 주목한다. 왜냐하면 면담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헤어짐은 당사자들에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오히려 관계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제로 동거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지지가 낮다는 점이 이들의 관계에 더 큰 불안정성을 주고 있었다. 이는 제 3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M-3은 공학대학원 박사과정생으로 연구실 근무시간이 빡빡해 수면시간이 항상 부족한 편이었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파트너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기도 하고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어 늘 갈등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 반면 F-1의 경우 파트너가 같은 헤어디자인 직종에 종사했으나 본인이 잠이 없는 편이라 트러블을 겪었다. M-5의 경우 야근이 잦아 먼저 잠든 파트너가 힘들어 했다. 이처럼 수면시간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빈번하게 체험한 갈등 요인으로 개인의 직업적 상황이나 체질에 따라 친밀한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

생활 패턴은 근무시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큰 경우에도 커플들은 갈등을 겪고는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근무시간 외적인 시간에 상대가 어떤 자기계발을 하는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해 다소간의 개인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또한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거나 실망스러울 때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가사 분담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습은 노동시장에서 항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청년들의 개인화된 면모라 해석할 수 있다.

>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것은 [퇴근하고] 나머지 시간에 오빠가 어떠한 **발전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 그러니까 **쟤는 뭐 게임하고 있나?** 약간 이렇게 되는거야. (…) 그래서 **일찍 나가서 일찍 끝나는 일을 했으면** 좋겠지. (F-5)

> 내가 뭔가 이렇게 **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오빠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나는 좋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는 되게 이해를 못하더라구. (…) **'이런 것 좀 정리해줄 수 있지 않냐 그냥 게임만 들여다보는 것 말고'.** (F-5)

울리히 벡(1999)은 현대인들에게 "일상의 허드렛일을 분배하는 만성적인 문제조차 직업에 따른 이동성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사회구조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남녀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 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F-5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집에서도 일을 할 때가 많았는데, 바리스타인 파트너는 늦게 나가서 늦게 오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시간적 공백이 겹칠 때 집안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말했다. F-5는 파트너가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직업적 특성 자체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직장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직업과 가사분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 시간 또는 공간을 가지는 문제도 동거 중 현실적 어려움의 계기를 제공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동거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지만, 동시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룸에 거주하는 등 주거 환경이 좁은 동거자들의 경우 상대방이 외출하는 상황을 매우 반길 정도로 개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처럼 동거 커플들은 개인적 시간을 갖는 것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다.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필요한 요소로 인식된 것이다. 하지만 F-9의 사례처럼 궁극적으로는 상대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개인 시간을 가지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함께 살기의 어려움은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식되었다.

>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과 그런 게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너무 밀접한 누군가가 계속 있는 거니까. 그 시기에는 제 자아에 집중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 **그냥 상대가 있으면 그냥 너무 좋고 그렇게 사는?** (F-9)

> 서로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사람은 방에, 한 사람은 거실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분리해요). (F-8)

> 동거 하잖아요, 그러면 (파트너가) **출장 간다 하면 완-전 좋아요** (박수 침). 저 바로 와인샵 가가지고 와인 두 병 사서.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웃음), (개인 시간과 공간이) 정말 필요해요 (웃음). (F-3)

> 그 친구도 저한테, 자기 오늘 뭐 **혼자 있고 싶다고** 갑자기 카페 가라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M-9)

개인적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울리히 벡(1999)이 개인화로 인해 이미 옛날식의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으며, "가까운 동시에 독립적으로 되는 것",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개인화된 청년들의 욕망을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동거에서 주요한 마찰의 소재로 지목된 것은 가사분담이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일관적으로 가사를 성별에 관계없이 '같이'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각자의 삶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서로 지켜 나가야하는 일상의 약속이었다. 즉, 가사분담에 대한 동거커플들의 인식은 매우 수평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동거 초반에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익혀가는 과정 속에서 마찰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는 일정 시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 비교적 평등한 방향으로 정착이 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두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주체적으로 경제적 책임과 가사 분담을 하게 되었으며, 상대적 평등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또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는 자율성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결혼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는 동거 파트너 관계에서 가사 수행을 똑같이 하는 비율이 70.0%로 법률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동거 실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사 분담에 대한 동등한 분담 비율"을 동거 파트너 관계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한다.

> 눈치가 장착이 돼요. 그래서 한 명이 빨래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막 같이 뭘 해요** (F-3)

> 뭐 음식 같은 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빨래 같은 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 · ·) **'남자는 뭐 해야 되고 여자는 뭐 해야 돼' 이런 게 없어 가지고**. (· · ·) 같이 막 빨래 널고 너는 것도 다 같이 하고. 화장실 청소도 무조건 같이 하고. **그냥 다 같이 하니까** (M-1)

> 요리 같은 경우는 여자 친구, 와이프가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손질 같은 거는 같이 하고. 설거지는 대부분 제가 하고 (M-2)

> 애인은 집에 있으니까 비중으로 치면 애인이 좀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저보단 (· · ·) 빨래로 조금 싸우긴 했는데. 그냥 제가 더 자주 하는 걸로 결론이 (웃음) (M-4)

> (초반 갈등) 1년 이후에 (· · ·) 리즈너블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분담해서 했던 것 같아요**. (M-3)

> **각자 민감한 부분이 좀 달라서.** 그냥 그거, 각자 해야 될 거 하고. 더러워 보인다 하면 했던 것 같아요. (F-2)

이러한 분담체계는 명시적이기보다는 다소 암묵적으로 정착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F-3, M-1. M-2는 연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눈치껏' 자신이 할 다른 일을 찾거나 일을 같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F-2 또한 각자가 민감한 부분을 눈치껏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이 정리가 되었다.

한편 커플들이 각자 집에 머무르는 시간 차이가 가사분담에 차이를 불러오기도 했는데, M-4처럼 학교나 일 등을 이유로 어느 한쪽이 집에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긴 경우,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대체로 가사 문제에 있어 동거커플들은 초반의 삐걱거림을 거쳐 대체로 수평적인 분담체계를 정착시켰다. 이는 동거커플의 가사분담이 대체로 수평적이고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Smock, 2000). 이러한 평등한 분담체계의 정착은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으로 해석되는 전통적 가족주의[28]를 피하고자 하는 한국 청년들의 '개인화(indivisuation)'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커플들의 분담체계는 경제적 측면, 즉 생활비에서도 나타났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동거과정에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또한 대체로 암묵적인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지출의 분담을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비용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분담 형식을 택하고 있었다. M-4와 F-1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한쪽이 주거비를 내는 경우, 다른 한쪽은 식비를 포함한 기타 생활비를 부담하여 분담 비중을 맞추려는 경향이 연구참여자 모두에게서 견지되었다. F-5의 경우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는 용품이 아닌 이상, 가계부를 쓰며 합산 금액의 반을 파트너와 함께 부담했다.

> 월세는 애인이 내고 저는 식비를 내고 그냥 그 정도? (・・・) 이외에 생활비는 **대충 반반** 하는 것 같애요 (・・・) 셈을 하진 않고 있어가지고 (M-4)

> 월세는 제가 거의 그냥 내고, 식비 같은 거를 거의 남자친구가 부담하는 (F-1)

> **난 가계부를 써. (…) 다 합산해서 완전 반반**. 먹는 것, 사는 것, 집에

[28] 가족주의는 앞서 선행연구 및 이론적 자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자 마다 그 용어의 사용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기존의 제도를 벗어나고 싶은 갈망에 주목하여 탈제도화를 연구의 핵심 용어로 선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란 가족을 형성하고 싶은 욕구와는 별개의 것으로 '전통적 가족주의'를 가족주의와 관련한 기본 용어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제도적 의미에서 탈제도화 현상의 원인이 된다.

필요한 것, 사는 것, 먹는 것, 그냥 그런 것 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집에 거울이 필요해. 그런 것은 내가 그냥 사지.** 왜냐하면, 좀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거의 내 욕심에 사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은 내가 하고, 정말 둘이 필요해서 사는 것은 반반 쓰고. (F-5)

두 번의 동거 경험이 있는 F-9의 경우, 첫 번째 동거 경험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조금 더 있는 파트너가 책임을 졌으나 두 번째 동거에서는 비슷한 경제적 상황인 파트너와 공동으로 분담을 했다. 이처럼 동거커플들의 지출은 매번 명확한 비용 분담체계를 갖춘다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간 공평한 방향을 이루고 있었다.

(첫 번째 동거에서) **경제적인 분담**은 거의 그쪽, 상대방이 책임을 졌어요. 왜냐면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저를 만난 후에 금방 1년 후, 2년 후에 바로 취직을 해서. 두 번째 (동거)때는 **생활비 같은 거는 반반**을 했는데, **집이나 이런 건 제가 구한 상태여서**, 제 쪽의 부담이 좀 더 컸던 거 같아요. 제가 좀 더 많이 부담했고. 두 번째 사람은 동갑이었어요. (F-9)

생활비 분담의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포착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생활패턴과 가사분담에 있어서는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는 가사분담에 있어 두드러졌는데, 가사로 인한 마찰은 이별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관련하여 동거 실태조사에서는 동거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나 갈등 경험 비율이나 헤어짐 고민 비율이 2020년 전국 가족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더 높다"고 분석한다.

뭔가 생활력에 대한 책임감이나, 분담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 동거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이 싸우는 거 같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잖아요?** 뭐 이혼할 게 아니니까. (F-10)

실제 M-3의 경우 동거 초반 약 1년가량 대부분의 가사를 자신이 혼자 부담하게 되어 헤어짐을 고려하였으며, F-9 역시 연인과 가사 문제의 기준 차이로 지속적인 마찰을 겪다가 결국 두 번째 동거관계를 정리하였다. 이에 대해 동거 실태조사에서는 "파트너 관계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법률혼 보다] 낮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니까 뭐, 오면 치울 게 너무 많은 거에요. 와서, 한참을 집안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 · ·) 이게.. 한 1년 되니까 좀, 그, **많이 쌓이더라고요** 이게 (웃음) (· · ·) 그런 생활 한 1년 하다가, 아 너무 도저히 힘들고 못 참겠어서 (M-3)

제가 일을, 가사 일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어-. 엉망진창으로 해요. 설거지를 하면 하나 깨진다거나. 청소를 해도 별로 깨끗하질 않다거나. 그래서 근데 나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싸운 거죠. (F-9)

이처럼 집안일이 커플들에게 이토록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는 M-3의 경험처럼 집안일이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연인 간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함께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공동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약속이 깨지게 되었을 때 이는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무너진 신뢰는 상대와의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역지사지.. 항상. 3년 내내 이렇게 싸우면서. 싸운다기보다 혼나면서, 속으로. **재는 왜 역지사지를 모를까…** 이러고 살았거든요.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M-3)

또한, 집안일이 가지는 '즉각성'도 이러한 갈등과 마찰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생활패턴 충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사나 생활패턴으로 인한 불편함은 그것이 바로 눈앞의 생활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즉각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노동시장에서 경쟁과 압박에 내몰려 일상이 피로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된다.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지는 이러한 즉각성은 따라서 동거커플이 맺는 관계의 지속가능성에 원만한 갈등 해결과 가사 분담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커플 사이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가사분업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반려동물의 존재는 필요한 가사노동의 양을 절대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유기할 수 없는 '돌봄의 책임'을 막중하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촉매제가 되기도, 반대로 상대를 더 신뢰하게 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매일 산책을 해야 하거든요**. 그, 실내에서 배변을 못 해가지고 (· · ·) 바닥에 이제, 개 고양이 털이 막 날리는데 (· · ·)

(M-4)

강아지가 있으면 아파도, 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산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제가 데려가고 하는 걸 보면서 ○○(남자친구)는, '아 △△(F-3)는 **가족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구나**' 라는 거를, 그냥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F-3)

그런데 커플 사이에 수평적인 분업체계가 정립될 때, 관계는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M-3의 경우가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M-3의 연인이 점차 가사분담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커플은 이전에 비해 수평적인 분업체계를 이루게 되었고, 관계가 지속되었다. M-4 역시 청소 문제로 반복적인 갈등을 겪었다. 파트너는 바닥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잠을 잘 못 자는 정도로 예민해했는데, M-4는 파트너가 불편한 부분으로 인한 갈등을 인지하게 되며 가사 분업을 스스로 해 나갔다. 나아가 M-4는 단순히 자신이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로봇청소기까지 구매하여 갈등을 해소하려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 변화는 동거 관계의 원만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년 간 가사 문제로 갈등을 반복한 이후] 거의 반반 했던 거 같아요. 반반. **내가 리즈너블하게 (…) 분담해서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설거지를 대부분 하고 내가, 빨래 거의 반반 하고, 그런 정도. (M-3)

저는 인제 그게 트러블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 바닥에 이제, 개 고양이 털이 막 날리는데, 저는 뭐, 털이 있으면 있는거지 하고 약간 (웃음) 일주일에 너무 많이 쌓이면 치운다, 이런 거였는데, 애인은 그게 약간 좀 잘 때도 불편하고. (…) **로봇청소기 하고 나서는**. 네. 훨씬. 거의, 네. **그러고 나서는 청소로 싸운 적은 없는 거 같아요.** (M-4)

송인하 · 임춘희(2014)의 연구에서도 평등 이념이 체화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요소를 동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조건으로 강조한다. 이는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실천되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인 분업체계가 형성될 때 동거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는 특정한 전통적 가족 이념에 따라 성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기보다 각자의 성향이나 삶의 양식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공통적인 부분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체적으로 수평적 방향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가족주의(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의 불안정성을 극복한 하나의 대안적 가족의 모습으로 분석 가능하다.

동거 관계는 단순한 연애의 연장선이라 볼 수 없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사분담은 동거 커플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며 연애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동거 커플의 갈등 경험은 당사자들에게 이별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사유로 여겨 지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가족 제도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가부장적 가사 분담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관계의 변화다. F-6은 부모님 세대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던 평등한 역할 분담은 자신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 명절 때 [어머님이 요리를] 하고 나면 아버님이 청소를 하셔. 그런데 요리를 어머님이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청소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게 난 싫어. **당연한 거지 대단한 게 아니잖아.** (F-6)

동거 관계의 '안정성'은 갈등의 빈도수보다 얼만큼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설계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유로운 갈등 표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오히려 동거에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갈등 해결 과정은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이해하는 그동안의 협소한 시각을 깨트려 주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즉 개인화 흐름 속에서 동거는 청년들이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함께 살아남기'를 가능하게 할 통로가 되는 가족생활의 개인화다.

## 제 3 절 친밀성의 경험과 양상

커플들의 동거는 갈등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마찰을 겪고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법에 대한 의미 있는 학습을 하고 있었다. 동거 커플들이 경험하게 되는 친밀한 관계의 양상은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서 행동조율을 통한 상호간의 배려가 이루어진다는 점,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성찰과 사랑하는 법을 새롭게 학습한다는 점, 심리적 안정감과 인격의

성숙을 얻게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젠더 성역할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변화하는 젠더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인됨(adulthood)을 획득하고 있다는 배은경(2009)의 논의와도 같은 맥락을 가진다.

## 3.1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행동조율

먼저 동거라는 생활 조건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서 행동조율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같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부터 가능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동거를 하며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 절대 몰랐을 거예요. 알아도 되게 늦게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24시간 붙어 있어야** 아는 건데 (· · ·) 데이트만 할 때 내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동거할 때랑 완전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걸.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얘기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대요. 지금의 내가 더 좋대요 (M-3)

> 더 **완전한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 · ·) 밖에서 데이트만 하면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같이 있으면서 뭔가 다른 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사실 뭐, 카톡으로는 그냥 '나 일어났어' 막 이런 것까지밖에 안 하는데. **하나 하나 다 보이니까** (M-1)

이처럼 단순히 연애 중이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각자의 '모든' 면모가 동거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상대의 본연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은 더 깊고 내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상대에 대한 지식의 양이 종류가 늘어나는 것이 곧바로 완전한 이해와 공감을 자아내지는 않았다. 동거자들이 상대에 대해 보이는 '이해'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진심으로 상대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 갈등을 피하고 합의점을 먼저 찾는 것이 있었다.

> 내가 알던 것 보다 좀 더 우울한 모습들이 있었구나 (· · ·) 좀 더 걱정 같은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구나 (· · ·) **좀 더**

**누군가를 더 이해하게 된 거 같아요** (· · ·) 좀 더 감정적으로 더 공감을 해줄 수 있고 (M-2)

**상대방을 이해**해주게 됐으니까. 그 입장에서 이제 적어도 생각하게 됐으니까 (M-3)

저는 그냥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다 넘어가는 편이에요** (M-5)

동거 한 2년 차에 접어드니까 쪼오금 **어떻게 하면 (갈등을) 피하는지 합의점을 찾게 되는 거 같긴 해요**. 서로 이제 알잖아요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얘는 폭발을 한다는 거를 이제는 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떻게 싸움이 날지를 아니까. (F-3)

한편 이렇게 상대와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는 모종의 행동 변화가 필요했는데, 이 경우 일정 정도의 개인적 희생과 포기가 요구되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동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함께 있는 동안에만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다소 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애에서의 변화와 달리, 동거에서의 변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원활한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변화이다.

저는 흡연잔데,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하니까 절대 안 폈죠** (M-1)

연애할 때 양보하는 거는 되게 막, 자신의 그런 근원적인 것까지 하지는 않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하고 있던 행동이라든가. 뭔가 **연애할 때 양보는 되게 표면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냥 양보를 한다거나, 그 순간에 참고 넘어가거나 하는 건데. **동거를 하거나 같이 지내면서 양보를 하는 거는, 내가 한 번 양보를 하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M-2)

이와 같이 동거과정에서 행동 조율 과정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약속이나 묵시적, 명시적 규약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약속은 생활에서 특정 행동을 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커플들이 갈등을 겪을 때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서로 합의한 이러한 약속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커플들은 상호 존중과 소통의 방식을 체득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거니깐, (· · ·) **원래 내 생활 패턴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 · ·)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것**. 너무 내 스타일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친구 관계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그런 거 (F-1)

[파트너와의 데이트는] **일주일에 1번**. 제가 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 2박 3일 동안 쉰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어디 가고**. 하루라도 쉰다. 금요일 날 저녁에 끝났으면.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월요일 날 출근이면 월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M-7)

이처럼 배려와 행동조율 과정을 통한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동거 커플들의 경향성은 친밀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생애전망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행동 조율을 통해 싹트게 된 자신들 만의 규약과 상호간의 신뢰는, 연애 과정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애 각본으로서 동거 커플들에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동거에서의 학습 과정은 표준화된 생애주기의 관문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날 다양한 가족에 관한 논의를 할 때 행위자의 동기나 인식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행동조율을 해 나가는 연구참여자들의 행위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것을 선호하는 90년대생이라던가, 세대적 조건으로 인해 연애마저 포기해 버리는 2030 이라던가, 아니면 연애를 거부하는 비혼 청년들이라는 기존의 청년들을 비유했던 모습들과는 큰 거리가 있다. 이들은 각자 차분하게 상대를 알아가면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나름의 규칙과 신뢰를 쌓아 스스로 자신들만의 과업들을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가족생활의 개인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 3.2 지속가능한 관계 맺기에 대한 성찰

갈등 과정에서 커플들은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해 성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성찰의 경험은 당사자들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불가피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사람이 생활공간을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인한 것이었다. 즉, 좋은 싫든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그들이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드는 구조적 발판으로 작용했다. 이는 동거

경험자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기존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 아무래도 같이 **붙어있으니깐** (· · ·) 싸우면 이게 **억지로 풀어지는 게** 있어서 (F-1)

> 동거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이게 어떤 말이었을까', '내가 했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좀 더 **화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 · ·) 어떻게 보면 좀 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더 갖게 된 걸 수도 있죠 (M-2)

M-10의 경우, 동거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에 있어 상대가 선호하는 일을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가사 분담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상대에게 해줄지 고민하는 것 보다, 파트너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상대방 또한 자신이 꺼려하는 일을 피해주는 것이 '다름'을 이해하는 자신들만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 저는, **싫어하는 것만 서로 [선을] 넘지 말자**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저는, 바닥을 꼭 청소해야 돼,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꼭 씻어줘 그거는 제가 엄청 싫어하는 거니까 여자친구도 지켜주고, 여자친구도 이제 뭐 음식을 뜯고 바로 여기 놔두지 말고 꼭 버려 이렇게 하면 [본인도] 그걸 지켜주고, (M-10)

이들은 면담 당시 이미 동거 기간이 2년이 넘은 상태였다. 송인하 · 임춘희(2014)는 지속성을 갖는 동거 관계는 "성 평등 이념이 체화된 성애적 결합"이라 규정하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 평등의 실현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적 요소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M-10 커플은 서로가 꺼려하는 점을 피하는 등의 실천적 행위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동거의 이상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만큼 일상생활의 공평한 가사분담은 동거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처럼 동거는 생활에서의 부딪힘을 통해 동거커플들에게 끊임없는 성찰과 관계맺기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거자들은 개인적 깨달음을 얻는 한편으로 관계와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하게 되었다. 매일의 일상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공동으로 마련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동거커플들이 궁극적으로

학습하게 된 것은, ‘사랑하는 법’이었다.

> (동거를 통해 알게 된 점을 묻는 질문에)**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지 (웃음) (M-1)

## 3.3 심리적 안정감, 인격의 성숙

동거는 커플들에게 하여금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성찰을 통한 인격의 성숙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주었다.

먼저 동거 관계는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아플 때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대화 상대가 존재한다는 점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에 대해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항상 곁에 존재한다는 것이 안정감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F-6은 동거를 하면서 평소 혼자 지냈을 때 생겼던 내적 불안감이 많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동거 이전에는 훨씬 치밀했다면, 동거 경험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심이 깊어졌다고 느꼈다. M-1은 혼자 지냈을 때 무척 고독하다고 느꼈는데 동거를 하면서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아플 때 파트너가 돌봐 주었던 때가 동거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 가장 큰 계기라 했다. M-4는 대학원 졸업 시점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파트너와 대화하며 모두 견뎌낼 수 있었다 했다.

> 내 친구나 주변이 하는 말이 내가 되게 여유로워진 것 같대. **안정적이게 된 것 같대**. (…) 심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이 되다 보니깐 그래서 좀 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스무스해진 것 같아**. (F-6)

> **아플 때** (…) 혼자 있으면은 아무도 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다들 이렇게 어쩜.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죽 같은 것도 사다주고 뭐. 진짜 무슨 뭐, 되게 웃긴데, 머리에 수건도 올려주고 물 짜가지고 막. 그런 거 (M-1)

>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게 있고요 (· · ·)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제가 엄청 뭔가 일이 많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솔직히 **혼자 지냈으면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M-4)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척박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혼자 사는 것의 불안함, 외로움 등을 언급하며 같이 사는 누군가의 존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혼자서 지냈을 때 느꼈던 고독감이나 외로움이 동거를 하며 많은 부분 없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F-7의 경우,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의 존재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이 일상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친밀성'에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특별히 여기는 개인화된 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친밀성의 탈제도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 **혼자 살았을 때는 고독하고 외롭기는 했었어요.** (・・・) 여자 친구랑 살면서는 외롭다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M-5)

>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 사실 저는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오빠랑은 [매일] 무슨 일 있었는지,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이런 거를, **아무 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F-7)

동거 관계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동거 실태조사의 응답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 '상대방과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낀다(88.4%)'에서 알 수 있듯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동거의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얻는 유대감과 안정감 등의 특징들은 결혼의 법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동거 경험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개인적 성숙을 이루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예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가치관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든지, 타인을 이해하는 포용적 태도가 함양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러한 성숙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동거 과정에서 상대와의 관계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돌아보며 '성인됨(adulthood)을 획득(배은경, 2015)' 했다.

**집안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제가 혼자 살 때나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그런, 뭔가 집안일에 대한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잘 없거든요. 혼자 살 때는 그냥 뭐 대충 해놓고 사는 거니까. 부모님이랑 살 때는 부모님이 다 해 주셨으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 같이 살고, 직접 하게 되면서 (· · ·) 인식이 좀 생긴 거 같아요. (· · ·) 집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되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M-4)

**집안일이 힘든 걸 이제 아니까**. (· · ·) **본가 가서도 되게 많이 치워요.** 원래 진짜 안 치웠거든요? 이걸 내가 안 치움으로써 그거를 어떻게 느낄지를 엄마가, 이제 아니까 (M-3)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어른됨의 경험이 남성 연구참여자들에게서 집안을 통해 더 자주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M-3과 M-4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남성 연구 참여자들은 집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동거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사를 수행해 보면서 알게 되었고, 나아가 본가에 가는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가사분담을 하게 되었을 정도로 인격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 3.4 새롭게 성찰하는 젠더 성역할

이성애적 친밀성 문제에서 성역할에 대한 갈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기존의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규범과 성역할에 대한 갈등은 많은 경우 만혼화나 여성들의 결혼 기피(4B)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전통적이지는 않지만 결혼 관계에 준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동거라는 경험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젠더 성역활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동거 경험에서 나타나는 젠더화 된 섹슈얼리티 규범과 성별 고정관념의 변화는 청년과 젠더를 이해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먼저 남성 동거경험자들은 동거가 여성, 여성들의 삶,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여자, 여자라는 성별에 대해서 (M-5)

**페미니즘에 대한 거** (…) 이제 그냥 듣기만 하거나 간접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영화 '82년생 김지영' 에 대해) 사실 이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이고, 뭐 이게 그런 사례를 보편화 시키는 거 보다는, 뭔가 그런 사례들이 가능하다는, **가능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 **여성분들은 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서 한 두 가지씩은 다 겪어봤을 거고.** (…)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M-2)

특히 연구참여자 M-2의 경우,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부터 더 깊고 내밀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접했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동거를 하면서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왜냐면은 동거를 하지 않았으면은 굳이 막 그런 (· · ·) 인터넷에서 막 **여성혐오에 대한 얘기를 굳이 데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꺼내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데이트를 하고 있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수 있는데, **동거를 하게 되면은 같이 있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컨텐츠에 대한 걸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M-2)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집안일의 힘듦' 처럼 기존에는 몰랐던 젠더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동거를 통해 얻게 된다. 남성들은 젠더관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관계의 평등성의 직접 실천해 보았고, 지속적인 성찰을 해 나가고 있었다. 단순 연애였다면 굳이 언급하거나 깊게 논쟁하지 않았을 여성혐오와 같은 주제들을 오랜 시간 여러 회에 걸쳐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동거 관계에서 M-2와 그의 파트너의 대화처럼 상호간의 이해도가 깊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된 남성들의 어른됨의 과정은 이러한 대화를 조금 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임은 분명하다.

연구참여자 M-4의 경우 동거를 통해 상대의 경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가족 관계나 출산 문제 등에 관한 정치적 입장이 유연하고 진보적으로 바뀌었다. M-4는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님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파트너의 불편한 감정에 공감하게 되었다. 또한 보육원 봉사를 하는 파트너의 경험을 접하며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했다.

(파트너가) **가부장적인 가족 시스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책을 읽다가. 그래서. 나름 타당한 이유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저는 또 결혼이 엄청 하고 싶고 이런 건 아니어서. (…) **저희 부모님이 제 애인의 장인 장모가 되는 거에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 저희 부모님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시더라고요. 저희 애인 부모님은 상대적으로는 좀 진보적이세요. 열리신 분 같고. (…) 저희 부모님은 아....네... 제가 제

애인이었으면 그냥 헤어지고 도망가는 게 최선책이지 않을까... (M-4)

일단은, 저랑 제 애인 둘 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다가 리소스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애가 생기면 그 리소스를 그렇게까지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좀 심할 것 같고. (…) 제 애인은 이제 보육원 같은 데 봉사를 나가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애 기르는 게 이게... 일반적인 그걸로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M-4)

이처럼 동거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입장을 취해보고, 정치적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만약 이들의 관계가 동거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되는 성역할로 시작되었다면 변화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성역할 규범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결혼 관계와 다르며 두 사람의 협상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거 관계는 앞서 언급된 심리적 안정감 뿐 아니라 정치적 변화도 읽어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들은 동거 경험을 통해 사회적 질서에 관한 시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성찰하는 젠더 성역할에 관한 이해는, 남녀 갈등을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분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남성성 개념 형성의 단서를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남성들은 기존의 가부장적 인식 체계의 불합리함(스스로에게)을 알게 되고 새롭게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역할을 구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젠더 관념에서의 개인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성별 고정관념은 끊임없이 약화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기존의 근대적 젠더 역할의 수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젠더 질서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배은경(2015)의 주장과도 같은 맥을 갖는다.

# 제 3 장 '결혼이 아닌' 동거

2장에서는 동거 안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친밀성의 경험과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거의 시작부터 현실적 문제들과 갈등 양상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동거 관계에서 독특한 친밀성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 수용도에 있어서 관계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장에서는 한국 가족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동거하는 커플이 외부로부터 겪는 압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들을 살펴본다. 동거라는 삶의 형태는 분명 결혼 관계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제도로부터 벗어나 있으나, 동시에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삶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개인화된 사람들이다.

본 장에서는 동거 커플이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면서도 동거를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따라 평판이 달라지는 경험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결혼과 달리 동거는 상호간 고려해야하는 친족의 범위가 결혼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동거 친밀성의 특징과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수틀리면 헤어진다'는 동거에 관한 통념과는 달리 친밀성의 단절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임을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

## 제 1 절 사회적 낙인

연구참여자들이 생활을 지속함에 있어 겪게 되는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는 사회적 낙인이다. 연구참여자들 전원의 공통된 답변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나이 있으신' 혹은 '어른들' 로 표현되는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나이 있으신 분들**은 동거한다고 했을 때 '**까졌네**' (M-5)

> 되게 **양아치라고 생각**하죠 (…)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게 많이 남아있어서, 다 여자친구랑 그러는 걸 **참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굳이, 결혼 했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미리 사는 것에 대한 (…)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M-1)

> (동거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부정적인 것 같고** (…) **엄마는** 그래서 (…)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냐**는 식으로 엄청 속상해하셨어 (…) 너 거기서 같이 살았다고 누구한테 말하냐고 (F-2)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족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은 여전히 '양아치'로 대표되는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부정적 평판 등의 실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선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비혼 동거커플들이 부정적 사회 시선으로 인한 인식적 차별을 경험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변수정, 2016).

동거커플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성세대 뿐 아니라 같은 또래 집단에서도 별다른 차이 없이 느껴진다고 연구참여자들은 답변했다. 같은 또래 집단에 대해서도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른들보다는 확실히 덜 하지만, '쿨한 척' 하는 정도일 뿐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F-8은 주변 친구들에게서 동거 사실이 생애 과정에서 흠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식의 질문을 받는다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동거에 사회적 수용도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인식 때문에 동거를 한다고 굳이 다 말하고 다니지 않긴 하는데** (…) 특히 어른들이나, **제 또래들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 약간 **쿨한 척해도** (F-1)

>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섣부르게 동거하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주변에서 막 나중에 너는 **결혼하면 남편한테 이야기 할거냐**. 동거했단 경험을 이런 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 그래서 아직까지 **동거하는 커플이 많다고 해도** 그걸 **아직까지 이해하기에는 정서상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F-8)

동거를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특유의 방식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 사회는 동거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특히 여성의 동거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이다. 이는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낙인들로 나타난다.

> 너무 불공평해요. 사실 남자한테 동거해? 라고 잘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 항상 동거 문제가 부정적으로 거론될 때는 그 **희생양이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라기보다. 뭔가 '**헤픈 여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남자랑 같이 살았던 여자' 이런 거? (F-3)

> 너는 그렇게 **남자랑 지내는 게 좋아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지내는**

**주제에 이렇게 막말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아, 대박 열 받아서, 정말. **여자가~ 이런식으로**. 그 때 느꼈어요. 아무리 개방적이어도, 은연중에 그게 있구나. (F-7)

동거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성관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보니까, **몸이 더럽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어른들도 있더라고.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한테** 이렇게. 몸이 더럽혀진다는 식으로? 근데 나는 몸이 더럽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몸이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 [몸이]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런데 어른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안 듣거든. (…) [어른들이] **그런 고지식한 면모들이 있어**, (F-6)

동거 커플들은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따라 평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성애적 관계를 다룬 본 연구에서 동거는 관계 내부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환경적 경험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들을 판단하는 외부적 압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같은 사생활 일지라도 F-3의 경우처럼 '헤픈 여자'라는 낙인이 지워지고, F-7의 사례처럼 부모님에게서조차 '여자가', '그렇게 지내는 주제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특히 F-6은 친밀한 관계에서 성관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도, 어른들은 마치 여성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어른들이 고지식해 보인다고 말했다. F-6이 생각하기에 친밀한 관계에서 성애적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더럽혀지거나 소중함을 잃는 식의 '어른'들의 발상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심적 부담감은 특히 '부모님에게 동거사실을 알리는 문제'에서 두드러졌다. 부모님, 즉 유교적 가족문화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성세대에게 자신의 동거사실에 대해 알리는 것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거자들이 택하는 전략은 '동거사실의 선택적 비공개'였다. 이는 동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심적 부담을 피해가려는 하나의 전략적 대응으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직장동료와 같은 공적 관계와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동료들한테는 비공개**를 했고 (M-2)

말을 안 하는 거 같아요 (· · ·) 굳이 막 그거를 자랑스럽게… **아직 사회적 시선이** (M-1)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F-3)

> **상대방에 따라**. 되게 가까운 친구들은 다 알지.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말해도 상관없는데.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 (…) [그런 사람들 한테는] 얘기해야 될 필요 없고. **얘기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어 항상**.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닌데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그러면 사람일은 모르는거잖아? (F-5)

> 저희 부모님..은 (・・・) 이미 동거 하고 나서 몇 번 제가 그냥 넌지시 얘기해봤는데 **너무 반응이 부정적이라서** (・・・) 결혼도 안 하고 왜 같이 막 살 생각을 하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 전 그냥 **가능하면 계속 비밀로** 할 거에요 (M-4)

이러한 한국 사회의 동거에 관한 부정적 인식들은 동거자들이 결혼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기성세대의 가치에 녹아 있는 유교적 가족문화는 '부모의 의사에 대한 자식의 수용'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결혼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있고 (・・・) 부모님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M-1)

> 저는 **제도보다도, 사람들 인식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학교에 애가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쟤는 동거로 낳은 아이야** 그렇게 하면. (M-6)

이처럼 동거 관계는 사회적 낙인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M-1은 자신들의 관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 압박 뿐 아니라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M-6는 이러한 압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 가족주의(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문제라 지적했다. 개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전통적 이념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거는 전영수(2020)가 말한 '테트리스 가족' 개념처럼 청년들이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생적 전략이 될 수 있으나, 그 관계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완전한 개인화는 개인 차원에서 동거 커플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도가 함께 따라와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동거 관계가 전통적 가족제도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처럼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지지가

여전히 존재(송인하 · 임춘희, 2014)하기 때문이다.

## 제 2 절 동거 친밀성의 특징과 동거의 지속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낙인이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동거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 후에도 자신들의 일상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법률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러한 압박을 벗어날 손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동거 커플들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낙인만이 자신들의 관계의 유일한 고민거리는 아니며 결혼을 하게 되면 생길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들이라 함은 하나는 결혼 관계에서 발생할 양가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삶에 개입된다는 우려와 동거는 보다 평등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점 두 가지를 말한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동거와 결혼의 큰 차이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에 개입되는지 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꼽을 정도로 상대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 송인하 · 임춘희(2014)는 가사분담에 있어서의 공평’이 실천되기 어려워 개인들은 선택에 따른 갈등을 경험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청년들의 고민을 제한적으로만 보여주는 해석이다. 결혼 제도는 집안이 개입됨으로 인한 불편함, 제도적 절차의 번거로움을 야기한다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제도의 심리적 부담과 불편함을 동거 경험을 통해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부담스럽게 여겼다. 이는 최근 수행된 동거 실태조사[29]에서 확인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유교적 가족문화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 된다.

> 저는 솔직히 그냥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긴 한데. (왜요?) 결혼을 하면 뭔가 서로 집에 더 의무감을 가져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 · ·) **완전 내 부모님처럼 챙겨야 하니깐, 그런 게 좀 불편해서** (F-1)

> 제일 큰 건 지금 둘의 생활에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을 대하는 거나 여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29]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어릴수록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가부장적 가족호칭 개선’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 들어서 명절 때는 서로 안 내려가고, 인사도, 안부 전화도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M-10)

>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데 하필 남자친구가 그거 있죠? 엄청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고, 남자 여자 따로 밥 먹는 그런 집안이에요.** (…)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설날, 추석이 있는데. 정말 자기도 부모님이랑 싸울 거긴 한데 먼저 갔으면 좋겠다, 자기 집을. 그래서 제가 말이 되냐, 나도 우리 집 가고 싶다. 당연히 한 번은 우리 집 먼저 가야 된다, 반반이어야 된다 이랬는데 자기는 진짜 모르겠다고 부모님. 가서 이제 요리 꼭 안 해도 되니까 가기만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먼저. **저는 [결혼하게 되면] 절대 [먼저] 안 간다고 6년째 말하고 있어요.** (F-10)

M-10에게 결혼은 파트너와의 생활과 관계 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가족/친족의 범위가 확장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부모님까지 챙겨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결혼을 고려해 볼 것 같다는 것이다. F-10의 경우 파트너의 집이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안이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명절이 오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일 것 같다고 말했다. F-10은 이미 동거를 하며 파트너가 명절에는 자신의 집에 먼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전통적 가족제도에 회의감을 보였다.

M-2에게 결혼은 관계를 사회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로 '귀찮은' 과정이었으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얻는 방법은 동거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친밀한 관계가 한 공간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들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실제 M-2는 결혼 이후에 동거 당시와 결혼 생활이 관계에 있어 결혼과 동거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F-9는 동거와 비교했을 때 결혼 관계의 차이는 시댁이 생긴다는 점과 기혼자라는 정상성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었다. F-9는 특히 결혼을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 가장 큰 삶의 변화는 시댁의 존재 유무로 결혼을 통한 정상성 획득의 의미는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것' 정도로 인식했다.

> 어차피 뭐 저랑 와이프 사이에서 신뢰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이미 다 이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느낌도 막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막 **그냥 살아가는 데 체크리스트 중 하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이 귀찮은 걸 왜 하지?**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이었어요. (M-2)

> 왜냐면은 저희 둘. 사실 결혼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동거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맨날 봐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 **저랑 와이프 사**

**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 결혼이랑 동거의 차이는 **양가 부모님이 이제 바운더리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M-2)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시댁이 생기는 거** 빼고는 동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시댁이 생기고, 그냥 내가 **기혼자? 라는 정상성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시그널을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거** 빼고는. 삶에 있어서는 비슷한 거 같아요. (F-9)

벡-벡 게른샤임(1999)은 개인화 현상이 가족의 통합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결혼이나 출산을 저해한다고 말했는데, 비록 동거커플들은 법률혼 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화의 여러 측면 중에서 능동적으로 각자의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서구의 개인주의화 방식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동거커플들은 한 개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호하는 관계 맺기를 하는데, 전영수(2020)가 말한 테트리스 가족 개념에 해당하는 행태다. 즉 청년들은 저비용·고만족의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전영수, 2020). 실제 연구참여자들은 동거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양가의 개입을 전통적 가족 문화에서 오는 가부장적 의례라 생각하고, 이를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하였다. 결혼을 늦추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F-6의 경우 동거이후 결혼을 하게 된 사례였는데, 결혼 전부터 우려했던 양가 부모님의 개입이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동거 당시에는 당연히 의무가 아니었던 파트너 가족에 대한 안부 연락이 하나의 일처럼 되면서 결혼관계가 그런 점에서 동거보다 훨씬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나는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 왜냐면, 내 가족이 오빠의 가족이 되는 거고, **오빠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게 정말 커.** 내가 시부모님께 동거했을 때는 연락 안하는 게 당연한거잖아. 그런데 내가 연락을 안하잖아? 그럼 오랜만에 연락했네, 연락 자주 안하네 이렇게 말씀하셔. 연락 자주해줘라, **연락 좀 자주 줘라** 이런 식으로 해. (F-6)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자신의 파트너가 비혼주의자인 M-4는 제도에 대한 생각이 뚜렷했다.

**뭐 애인이 (결혼을) 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걸 밀어붙일 필요가 있나 해서**. 네, 안, **안 하기로 이제, 한 거죠**. (M-4)

> 아무래도 뭔가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면은 뭐 며느리, 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제 남편 집에 약간 소속이 되는 듯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소모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저희 부모님이 뭔가 바라시는 거**, 요런 것만 들어봐도. **소모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그런 데까지 소모를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M-4)

M-4는 비혼주의자인 파트너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한다 말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혜택이 있다면 앞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결혼으로 인해 상대방의 집안에 포섭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소모적인 것으로 여겼다. 동거가 친밀한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장경섭(2009)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가족피로'의 누적에 반응하여 '가족'의 실효범위(effective scope)를 축소시키는데, 연구참여자들의 동거 현상 또한 전통적 가족의 범위로 넘어가지 않는 가족 실효범위의 축소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동거와 결혼의 차이에 관한 질문에 M-4는 법적 서류 상의 차이로만 생각했다. M-4는 제도에 편입되는 순간 자신들의 친밀한 관계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이 제도로 인한 혜택보다 큰 경우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자신들의 관계는 가족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사례는 동거와 같은 관계 맺기의 방식이 가족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또한 친밀성의 탈제도화 과정으로 해석 가능하다.

>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제도가, 그걸 승인했냐 안 했냐 정도?** 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제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도로부터 받는 간섭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엮이게 되면서 생기는 간섭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 혜택이 간섭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우리는 하지 않는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거라서. (…) 뭐 애인이 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걸 밀어붙일 필요가 있나 해서. 네, 안, 안 하기로 이제, 한 거죠. (M-4)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동거를 하면서 자신들이 얻게 될 효용에 대해서 파트너와 상호 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M-7의 경우, 여자 파트너가 관계가 안정적인데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사실혼'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결혼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지만 파트너가 결혼으로 인해 받게 될 스트레스가 더 크다면 지금의 삶에 더 만족한다는 것이다.

> 그냥 사실혼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살까?** (…) 그냥 둘 다 뭐. 경제적으로도 상관없으니까. (M-7)

그런데 M-7의 파트너처럼 자신의 삶을 '사실혼'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동거라는 형태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전통적 가족주의가 단단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들의 표현을 해석하자면, 당장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법률혼이 곧 전통적 가족주의로 여겨지고 동거가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것이다. 법률혼을 피하거나 지연시키고 동거를 지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따라서 친밀성의 탈제도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동거 관계에서 상대적 평등의 조건으로 각자가 경제적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다. 동거 생활의 최소 반절은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반반'을 유지해왔던 삶에서 결혼으로 인해 법적으로 재산이 묶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자유가 없어질 것 같다는 것이었다.

> **결혼해서 재산이 묶이는 거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웃음) 근데 그거 생각하고는 결혼 못하죠. (M-7)

> 결혼하면 지금은 내 돈은 내 건데 **결혼하면 돈이 합쳐지잖아요.** (…) 여자친구랑 [그동안] 반반 했거든요. 일단 제가 계산하면 알아서 돈을 보내줬어요. (M-6)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연구참여자들이 경제력과 가사 분담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맥락의 답변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평등에 대해 질문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분담에 대한 질문을 건네면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경제력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동했다.

> 항상 **가사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신경 써서 물어봐요**. 자취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에서 사는 친구들이라도, 얼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 그게 필수인 거 같아요 거의. **그게 월 천 만원 버는 것만큼 중요해요.** 밥을 삼시세끼 해줄 수 있는 게 월 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월 천을 벌던가, 아니면 가사일을 빡세게 하던가.** (…) 저는 만약에, 아주 만약의 경우에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권은 따로 할 거 같아요.** (F-9)

> **돈 중요해, 경제 중요해.** (…) 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서로 빚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F-6)

F-9의 경우 동거를 하기 전에 상대가 가사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 여겨 본다고 말하면서 이를 경제력과 연관 지어 설명했다. 삼시 세끼를 잘 챙기고 가사일을 수행하는 일은 월 천만만의 경제력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F-6의 경우에도 빚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강조했다. 또 상호간의 경제적 기여도가 유사하다는 점은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동거는] **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결혼을 하면 생활비가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뭔가 나한테 필요한 걸 가질 때 남편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F-1)

> 서로 뭔가를 할 때, **눈치-**. 그니깐 당연히 어느 정도 배려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내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옷 사는 거나 제가 놀러 다니는 거나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여가시간 가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동거긴 하지만 완전히 결혼한 게 아니니까, **서로 아예 그거에 대해서 많이 터치는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으니깐. (F-1)

> 처음에는 우리가, 각자의 용돈을 나눴잖아. 그래서 용돈에서 커피 값나간 것까지 [가계부에] 썼었는데, **나도 프라이빗한 게 있고, 오빠도 프라이빗한 게 있잖아**. 그런데 이 용돈까지 [가계부에]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 오빠가 어디다 쓰든 나는 사실 터치를 하고 싶지 않은거지. (F-6)

F-1은 경제적 공동 책임의 의무가 생기는 결혼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의 자율권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동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F-6의 경우도 동거를 통해 평등한 관계는 경제적으로 '프라이빗'한 자율성에서 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용돈은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F-3 또한 각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의 삶과 친밀한 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 인식했다.

>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는 돈을 같이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따로 할 거 같아요.** (…) **그냥 알아서 각자 하게 될 것 같아요.** (F-3)

이처럼 '각자 알아서' 경제권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개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가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상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결혼은 법률적 절차뿐 아니라 통념에 많이 지배가 되는 반면, 동거는 각자가 더 주체적이고 상대적 평등을 이루기 쉬운 관계라 인식했다. 이처럼 동거에서 친밀한 관계의 각본은 이성애 연애 각본이 여성들에게 여성성을 환기하는 장소가 된다고 한 임국희(2020)의 연구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거 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과 경제권을 삶의 중심에 놓고 성취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 (결혼은) 끝나지 않는. 깰 수 없는, 깨면 안 되는. 모르죠 또 나중에 이혼을 할 지. 문제 생기면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근데 항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키우고 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만약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도 오빠가 크리티컬한 잘못을 한다고 하면 그냥 헤어져야죠. 안되겠지만, **너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곤 있어요.** (F-2)

F-2는 이러한 경제력인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는 요소라 생각했다.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자율권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F-2는 동거 이후 결혼을 하였는데, 동거할 때와 유사한 경제적 관계를 가지며 이전과 큰 차이 없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동시에 홀로 파편화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개인화된 사람들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동거는 분명 책임이 따르는 관계지만 경제적 독립이 관계에 긴장감을 준다는 점에서 보다 평등하며, 이는 동거 관계를 지속하게 해주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동거 친밀성만의 특징들은 전통적 가족 문화에 넌더리가 나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비교하여 긍정적 요소로 인식된다.

## 제 3 절 헤어짐의 어려움

동거는 불안정한 관계로 여겨지곤 한다. 때문에 동거관계에서 이별은 쉽고 가벼운 것으로 흔히 생각된다. 동거 실태 조사에서도 갈등 경험 비율이나 헤어짐 고민 비율이 2020년 전국 가족실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점을 동거 파트너 관계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동거커플들 또한 심리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경험했다.

> 동거만 하다가 **수틀리면 짐 싸서 나가면 그만**이야. 그럼 그건 끝이에요 (M-5)

> 이러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 · ·) 뭔가, **동거가 오래될수록 그러한 불안감은 있어요**. 이게 너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잖아요, 같이 사는 거니까. 근데 이러다가 헤어져버리면, 진짜 이혼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 (F-3)

그렇다면 동거 관계는 정말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관계' 일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니었다. 동거관계에서 이별은 본원적인 불안정성이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상' 쉬운 것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실제 동거 관계에서의 이별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체험된 것이다. 동거가 끝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별이 반(半)이혼을 한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별의 과정을 힘들었던 기억으로 말했다.

F-4는 삶 자체가 서로 '뒤엉켜' 있는 동거에서의 이별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 말했다. 일반적인 연애 관계에서도 정이 들면 이별이 쉽지 않은데,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없다 해서 동거에서의 이별이 간단할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F-4는 같은 공간에서 매일 아침 눈을 함께 뜨는 일상은 스스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에 대한 마음을 훨씬 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동거에서의 헤어짐은 감수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이처럼 동거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삶과 생각들에 스며들게 하였으며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이별을 상상하는 것조차 힘든 것으로 느끼게 했다.

> **쉽게 못 헤어지지.** 일단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잖아 그러면 옆에 얘가 누워있거든. **이런 사이가 된 사람이랑 어떻게 쉽게 헤어져.** 못 헤어지지. 굳이 **결혼이란 지난한 법적인 절차가 없다 뿐이지** 인간이 헤어지는 거가. 어떤 상태의 관계든 간에 인간이 서로 정을 붙이고 나서 **헤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 인간과 인간으로서 만나서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삶 자체도 뒤엉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동거를 한번 시작한 이상은 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 (F-4)

이별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생활공간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심정적 타격이 합쳐진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짐을 빼는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며 이별의 과정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집을 처분하는 문제가 끼어들 때, 이별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이처럼 모든 일상을 함께 하던 커플이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은 비동거 연애관계에서의 이별보다 훨씬 어렵고 지난한 것이었다.

> 짐을 엄청 많이 빼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짐을 한 다섯 번 쌌을 걸?** 그거 알지 이사박스. (…) **싸우면 싸고, 그리고 못 헤어지겠다고 다시 풀고, 다시 싸고, 다시 풀고 (웃음).** (F-5)

> **끝날 때는 동거가 좀 힘들어요 짐 정리를 해야 하니깐**. 끝나고, 저번에는 짐을 찾아와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안 돼요. 내 짐이 옷만 하더라도 거의 (· · ·) (F-1)

> 끝날 때는 **너무 불편해요**. 그 막, **제 짐을 다 빼야 되고**. 뭔가 다 헤어지고 빼는 거기 때문에 (· · ·) 나중에 헤어졌을 때는 저도 거기가 그립고. 들리는 바로는 나에 대한, 제 모든 게 있으니까 그 여자애들도 괴로워한다고... 참 마음이 아프죠 (M-1)

이처럼 동거라는 삶의 형태는 동거커플들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구속감'을 부여하고 있었다. 실제 연구참여자들은 동거 상태를 진중하고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관계가 결코 '잠수를 타거나'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같이 집을 사니까 **싸운다고 해서 나가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묶여 있는 그런 **구속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면으론 좀 **가볍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 헤어지면 잠수 타고 이러잖아요, 할 수가 없거든요 동거를 하면 (웃음) (F-3)

> **싸우면 잘 데가 없으니까요.** (…) **헤어지거나 그러면 집을 새로 계약해야 하는 데 한 두 달 걸리잖아요.** (M-6)

연구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자체는 결혼과 거의 비슷하다고 인식했다. M-3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속박'이라

표현할 정도로 서로의 삶에 개입된 정도가 동거에서도 매우 강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는 결혼 관계와도 유사하다. 실제 동거 실태 조사에서도 동거 가족들의 가족으로 인한 부담을 가족실태 조사에 비해 더 크게 느끼는 등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약간 이게 심리 변화가 진짜 결혼한 사람들의 심리 변화랑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보면 돼요. 결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나보다 더 속박된 의무감에 책임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계시잖아요, 결혼식 이런 걸 했고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근데 나도 되게 비슷하게 그 친구한테 속박이 돼있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헤어지고 싶어도 쉽게 못 헤어지는 관계였어요,** 그 친구랑 나랑은. (M-3)

이러한 이별의 어려움은 원활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시키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동거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관성(inertia)'을 가진다는 뜻으로, 기존의 문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Stanley et al, 2006).

> 정말 큰 단점이, **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 · ·) 연애를 했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관계가, 동거를 함으로써 괜히 질질 끌어서 (· · ·) 서로의 인생에 대한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 · ·) **묶여져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괜히 동거를 하니까, 이 **관계를 억지로 유지시키는**, 그렇게 되는 단점도 없지 않은 거 같아요 (F-3)

이처럼 동거에서의 이별은 실제 삶에서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거관계에서 이별이 어렵다는 말은 곧 커플이 같이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할 의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별의 어려움은 동거 커플 사이의 지속적 소통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학습의 필요성은 동거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계 속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점들을 고민하게 했다.

이들의 관계는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분명 법률혼으로 구성된 가족들보다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거커플들 또한 같은 생활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내밀한 친밀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구속력(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다고 해서 꼭 불안정할 것이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 가족 제도를 벗어난 사람들이지, 동거에서의 친밀한 관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별을 어렵게 하고 상호간 긴장감을 부여하는)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 제 4 장 동거 '가족'의 가능성

## 제 1 절 가족이라 말(안)하기

>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 이라고 하죠, **아빠 엄마 있고 자식**, 아이 있는. 그게, 약간. **바람직한 가족 시스템**, 요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 없고. **그게 좀 바뀌긴 했죠. 저희 부모님이 안 바뀌셔서 그렇지.** (M-4)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와 사회적 수용도는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다. 2장에서 살펴본 한국가족 문화의 특성들과 사회적 낙인과 같은 청년들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경험은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낮으며 여전히 기존의 가족관이 사람들에게 더 '정상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4 또한 부모님 세대는 이러한 정상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만, 자신들은 동거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으며 기존의 정상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동거 커플들의 '개인적' 인식 자체는 사회적 수용도와는 달리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가족'으로 명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사람마다 달랐는데, 이는 개인적 수용도와 사회적 수용도의 간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이 스스로를 '가족'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가 어떤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동거하는 상대를 '가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단지 사랑하는 연인, 혹은 함께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하우스메이트(housemate)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를 조건 없이 위해주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비혼동거 실태분석 조사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74.1%)'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 뭔가 **가족 같고**. 계속 공유를 하잖아요, 공유를 많이 하니까. 내 생활에 대해서 (…) 내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니까 (M-1)

> 저희 집 강아지, 고양이가 되게 저희 집에서는 약간 자식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 그리고 이제 저랑 제 애인이 약간, 굳이 **정상가족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엄마, 아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약간 뭐,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M-4)

> **가족이라고 느끼는 게** 옆에 있을 때 **부담이 없는 사람**인 거 같아요 (…) 옆에 있어서 편하면, 가족 같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되게 챙겨주고 싶고 그런거지 (M-3)

> 가족이란? 제 생각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도 같이 **조건 없이 챙겨줄 수 있는 거**. (…) **가족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서로의 행복과 안일을 바래주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F-3)

동거가 가족으로서 인식되는 지점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들거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다. 동거하는 연인이 심리적 지지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족인 부모로부터 이러한 지지를 요청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F-2의 경우도 오랜 수험생활로 힘들었던 과거를 모두 함께 해준 사람은 파트너였고, 부모님보다 더 많이 기댄 존재라 했다. F-9는 늘 자신의 삶을 컨트롤 하려는 부모님을 떠나 자신이 새롭게 가족을 꾸리고 싶었고, 동거 당시 파트너가 자신에게 그러한 존재였다 말했다. 이러한 동거 커플이 보여주는 비전통적 삶의 방식은 개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오빠랑 있을 때 가족 잘 안 만나긴 했어요 (· · ·) 저는 그때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그런 힘듦을 내색을 안 하고 오빠한테 다 해서**, 그냥 엄마는 잘 큰 줄 알아요, 알아서. 남자친구, 오빠한테 사실 진짜. 사실 스무살 후반은 오빠가 키운 것 같아요. **기대는 것도 되게 많았고** (F-2)

> **부모님이 저의 삶을 엄청 컨트롤 하시려고 하셔서,** (…) 대체로 사생활은 안 알려드려요. (…) 부모님하고 사이도 좋았다면 뭐, 동거도 안 했을거

> 같거든요? 집에 살았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저만의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F-9)

물론 친밀한 관계, 즉 사랑은 개인화라는 흐름속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하나의 과업이 된 부분도 있다(벡-벡 게른샤임, 1999). 실제 F-2는 전문대학원 입학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동거를 하였는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험 외적인 것에 신경쓰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F-2는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기 보다, 시험 준비 기간과 동거 관계를 함께 유지하는 선택을 하였다. 그녀에게 동거는 자기계발과 모순되는 것이라기보다 삶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생존주의적 상황 속에서 얻는 긴장을 원가족이 아닌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 이러한 현상은 개인화된 상황에서의 전략적 행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의 동거는 가족 형태의 개인화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자신들의 관계를 가족이라 명명하지 않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M-8에게 가족이란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단순히 어떻게 명칭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발생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가족의 개념 자체가 부모님과 자식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생각이 굳건한 경우도 있었다.

>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거고, **결혼을 안 하면 가족이 아닌 거죠.** (…) 너랑 나만 좋아서 떠나서 결혼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아니고,** 다 절차와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혼수를 장만하고, 경제적 **재무도 설계를 하고,** 뭔가 가족이 나아가야 할 타임라인도 정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양가에서** 집을 마련해 준다든지 **금전적인 도움을 분명히 줄 텐데** 그걸 받고 뭔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M-8)

> [본인에게 가족이란] **엄마 아빠? (웃음)** 완전 가족 같다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여자친구-?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가족보다는. (M-9)

즉 가족의 정의에 있어 M-8에게 법적 구속력과 양가의 동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엄밀히 말해 동거하는 상태로는 그 다음 '타임라인'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 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 M-8은 또한 미래 설계를 위한 양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인정문제를 예로 들며 그러한 조건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암묵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여겼다.

반면 우리는 이미 가족이라고 한 경우는 그들에게 파트너는 부모님보다 더 기대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가족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성애 커플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결혼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지 꼭 결혼을 해야 관계가 안정적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가족에 대한 의견 차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법 제도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삶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인 것이지 관계의 안정성이나 상호 간 신뢰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 **가족이라는 굴레가. 괜히 의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족이면 의무감에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여자친구는 당연히 지금 나랑 편한 그런 관계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느껴질 것 같은데. (M-3)

>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해야 혼인 신고를 해야 진짜 결혼**이라고 한 걸 가정을 한다면, 그게 파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이후의 이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그 부담이 없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동거고. 결혼은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좀 더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해요.** (M-3)

M-3의 경우 가족을 '굴레'라 표현할 정도로 M-3는 가족관계가 주는 의무감이나 압박감을 부담스러워했다. 즉 M-3에게 가족이란 파트너와의 관계를 의미한다기보다, 기존의 전통적 가족제도가 주는 의무감을 부여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동거는 가족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속과 속박이 덜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트너에 대해서는 편한 관계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가족이라 부르는 연구참여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뉜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이미 너무나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사람마다 가족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 개인화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리고 싶은 욕망과 결혼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거라는 친밀한 관계는 제도와 이념 그리고 여러 가치관이 뒤섞인 공간이다. 오히려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하는 가족의 의미는 전통적 '가족주의'보다 '친밀성' 그 자체에 더 가까웠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가족주의'에 기반했다고 해서 그 표현에 따라 각각의 동거관계를 기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부르거나 부르지 않는 갈림 현상은 따라서 기존의 연구나 사회 인식 체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관계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개인화된 친밀성을 유지하는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제 2 절 동거의 이점과 무게

동거를 해보고 싶거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연구 참여자들 모두가 다른 답변보다 더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신중하게 대답했다. 대부분이 추천을 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진지하게 결정을 내려야할 문제라 입을 모았다. 동거가 생각만큼 쉽지도 않고 시작을 하면 쉽게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동거도 큰 결심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차라리 결혼 생각까지 들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나 감정적 이끌림만으로 동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결혼 예비단계로서 동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 그만큼 동거라는 형태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큰 문제라는 것을 함축한다. 설사 결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동거를 했던 시간이 결코 버린 시간이 아니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살고 싶은지를 계획하게 했다.

> 결혼하고 안 맞으면 큰 일 나잖아요. 사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생활하다 안 맞으면 큰일나고** 솔직히 잠자리도 잘 맞아야 하고, 생활패턴도 맞아야 하고 식습관도 맞아야 하고, 수면패턴이나 습관, 잠꼬대도 중요하고. (M-6)

F-4는 법적으로 확인만 안될 뿐, 동거가 자신들의 친밀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동거는 결혼 전 경험해보는 것 정도의 친밀한 상태가 아니라 삶에서 뒤엉킬 준비가 된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던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동거를 하는 거라면 그건 오케이인데 그 외부적인 요소들로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면 좀 말릴 것 같아. 단순히 내가 서울지역에서 일을

구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같이 살면 **돈 아낄 수 있겠다. 이런 건 안된다는 거지.** (…) 사람들이 동거를 해보고 안되면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하고 싶어.** (F-4)

대체적으로 동거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그 반대도 있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공통 사항은 동거가 그 자체로서 자신의 생애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느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혼 계획의 유무는 동거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동거를 삶의 과정 그 자체로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이 동거를 하나의 생애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 현상은 가족에 관한 의식의 변화이기도 하면서 규범적 변화의 가능성 이기도 하다.

F-1은 결혼 계획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거를 결혼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주로 이해하고 있었다. 계획이 없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F-3는 동거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결혼 과정으로서 관념이 강하고 이는 동거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먼저 해 보는 상황이 더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해서 몰랐던 걸 발견해서 이혼, 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동거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헤어지고, 맞출 수 있으면 미리 맞추고.** (F-1)

동거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을 해야지** 사람들이 **동거를 긍정적인 기능으로 봐주는 거 같아요.** (…) 우리나라 보면 **결혼하고 한 1~2년? 3년? 뭐 있다가 혼인신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거 같아요.** 아니 사람들 다 초대해서 결혼한다고 했으면 결혼을 해야지, 차라리 그 전에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든가. 이게 더, 사기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무슨 이중잣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F-3)

F-3이 말한 '이중잣대'라는 표현은 법률혼 규율이 청년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와중에 혼인신고는 늦게 하거나 동거만 계속 하는 탈제도화 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가족주의적 가치관과 개인화한 가족 '행태'가 충돌하는 모습이라고도 해석 가능하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것이 이러한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로 F-3은 그러한 행태가 자신들의 동거 관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F-4도 같은 맥락에서 결혼 계획의 유무는 동거의 성질이나 친밀한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생각했다. 오히려 동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로 조금 더 심화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다시 말해 동거는 커플들에게 친밀한 관계에 대해 더 고민하도록 만드는 신중하고 중대한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자체로서 친밀한 관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오히려 동거를 하면서 얘랑 결혼을 해도 되겠다. 생각이 커진 거지.** 불편한 점은, 처음에 위생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선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게 너무 고맙게도 되게 그걸 신경 써주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마이너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살면서 불편한 문제 같은 것들은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F-4)

M-2 또한 동거를 할 때 결혼을 염두 하지 않은 상태였다. 동거 과정에서 파트너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케이스다. M-3 또한 동거를 해 보면 결혼에 대한 결심이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M-3의 경우 처음에는 파트너와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동거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살면서 관계와 행동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 저 연애할 때 초반에는 사실 저도 그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가, 이제 여자 친구가 슬슬 얘기 꺼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들고, 결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M-2)

> 동거를 해 보는 거 자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가, 무조건 그 생각이 들어요. 살아 보면. 난 **처음에 1년 동안 무조건 얘랑 결혼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머리에 그냥 때려 박혔었거든요. (M-3)

M-4는 친밀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파트너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혜택을 전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들은 가장 건강한 상태는 동거를 최대한 지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M-4는 결혼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친밀한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고 싶다면 동거를 해볼 것을 추천했다. 독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면 친밀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안정감은 동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 사실상 집 빼고는 크게 혜택 받는 건 없는 것 같고. **집이 정말 필요하면 하자.** (…) 같이 생활을 해보는 것 자체가. 만약에 결혼 제도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같이 살 의사가 있다. 뭐 막 평생 따로 살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저는 빨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M-4)

M-8의 경우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다. 동거를 하며 상대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결혼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된 사례다. 또 동거를 해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연애보다 동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 사실 결혼을 염두 하지 않았어요. 동거 시작할 때. 근데 동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더 알게 돼서 결혼을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거죠. 동거가.** (…) 결혼을 해서 동거를 했는데, 동거를 안 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면 뭔가 늦은 거잖아요. **결혼 전에 발견을 하고 파악하고 결혼을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M-8)

동거는 커플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파트너와 자신의 삶에 관한 기준을 얻게 된다. 또한 동거는 앞으로의 생애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 일상생활에서 고민하게 만들어 모종의 행동의 변화와 성찰을 만들어 낸다. 동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개인화된 생애 과정이며 법률혼보다 생애 과정의 전략을 짜는 데 있어 보다 자율성을 가진다는 이점이 있다. 단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동거를 주변에 추천할 것이라 했지만, 동거 파트너가 될 사람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처럼 동거는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만 머무르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

## 제 3 절 대안적 생애과정의 모색

연구 참여자 중에는 동거 이후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이별의 과정을 겪고 다시 1인가구가 되거나 두 번째 동거를 시작 또는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삶의 형태를 굉장히 세밀한 방식으로 고민하며 대안적 생애과정을 모색했다. 이는 동거 중인 상태인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한다.

M-7의 경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평가했는데, 청약으로 집을 하나만 보유할 경우만 생각했을 때에는 결혼이 유리하지만 그 외적인 상황들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효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혼이 아니라 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동거 상태가 차별받는다는 의식조차 M-7은 시간적

낭비로 느끼고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자율적으로 찾아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 내가 집 하나만 갖고 그냥 **신혼부부 대출받아서 해야 한다면 결혼이 유리하죠**. 근데 제 상황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 사실혼을 하고 싶기는 해요. 네 뭔가 [법률혼이 아니라 해서] **차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하면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걸 더 찾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관련된 지식도 없어서 자기가 무지해서 그런 건데. 굳이 뭐 저는 친구들이 신혼부부 특공 넣는다면은 주변에 형들이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이상한데 엄청 넣어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거 넣어 가지고 뭐 할거냐고. (M-7)

개인의 '자율성'이란 사회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주인으로 이해하는 방식(김수정, 2019)이라 할 수 있는데, M-7에게서도 스스로의 삶을 주인으로서 해쳐 나가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M-7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 전반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즉 동거는 단순히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30]'인 행동이라기보다, 자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고도로 개인화된 생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다. 연구참여자은 이미 결혼을 사회적 인정문제나 제도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로서의 결혼'은 F-4에게는 '출산'과 '파트너십'을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M-10의 경우 핵가족 틀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한 비교 기준으로 여겨졌다.

> **결혼과 출산은 좀 구별해서 하면 좋겠지.** 지금은 결혼과 출산을 뭔가 되게 묶어서 같이 생각한단 말이야. **파트너십이나 그런 것을.** 나는 나중에 제도가 정비가 되면 파트너십하고 이런 거랑 딱 두개로 나뉘면 좋겠다. **파트너십은 그게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제도가 있고.** (F-4)

> (파트너가) 결혼보다는 애기를 먼저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결혼은 뭐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애기는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M-10)

F-4는 친밀한 관계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그 무게 또한 구성원과의 관계나 출산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 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의 제도적 환경은 대체적으로 결혼과 그 외의 것으로만 양분되어 있어, 동거를

[30] 한국사회는 "몰지각하고 부정적인 사회생활"과 같은 개인주의에 대한 몰이해(박노자, 2003, 김수정, 2019 재인용)와 한국의 집단주의로 인해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의 동의어로 취급해 왔다(김수정, 2019).

포함한 다양한 관계들을 포섭하지 못한다. 출산 문제도 그 틀 안에서 밖에 볼 수 없는데, 단일한 제도만으로 여러 차원의 관계들을 한 번에 뭉뚱그려 해결하려 한다면 점점 더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M-10도 출산을 결혼과 연결 짓지 않고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이 또한 대안적 생애과정의 모색이다. 그들 관계에서 동거의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파트너와 결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는 출산을 일찍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가족문화의 틀안에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즉 출산 자체만을 위한 생애 과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것이 M-10의 생각이었다.

이처럼 동거를 경유하는 생애 과정 속에서 출산이나 부모되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위치 지어질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모호한 상태다. 동거를 대안적 생애라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큰 부분이 부모되기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동거는 가족만들기의 다양한 의미들 경계에 서있는 현상이다. 특히 출산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결혼을 염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만약에 **결혼을 하면 애기는 낳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 이미 동거를 하면서 서로 합을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애기를 낳으면, 같이 애기한테 맞춰나가서, 수월할 것 같아요. (F-3)

> 예를 들면 학교에 애가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쟤는 동거로 낳은 아이야** 그렇게 하면. (M-6)

관련하여 배은경(2017)은 "오늘날에도 '내 아이'를 통해 가족을 만든다는 각본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내 아이'를 통해서만 나와 내 가족의 정상성과 행복이 달성될 수 있다는 근본 전제 자체가 이미 전통적 부모되기에 준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민은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잘 드러났는데, 동거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전통적 가족만들기 각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러한 가족의 정상성 획득조차 "아이에 대한 책임이 젠더 평등하게 공유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 가족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가족만들기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러한 각본에서 벗어난 상상을 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F-9의 경우 남편없이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반려묘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 자녀. 사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욕망인데,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 사유리씨가 되게 이슈 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 지금 그냥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F-9)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결혼을 하면 되는데 대안적 생애과정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반론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의 청년들은 이미 출산과 결혼을 분리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거의 이점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앞선 질문에서조차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거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동성애 커플들이나 셰어하우스 공동체, 노인 동거 등의 사례가 그렇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동성애 관계로 동거를 하는 커플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들과 이성애 커플의 가장 큰 차이는 결혼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인정을 더욱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 **이성애자와 퀴어는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동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어차피 결혼을 할 계획이나 미래가 없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일단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계획이나 기대 자체가 확실히 다른 것 같고. (퀴어 여성 연구참여자 - 이하 Q-F)

동성애 커플의 사례는 이성애 커플과 법률적 선택의 여지나 사회적 시선 차이가 커서 이들을 모두 한데 모아 그 전형성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대안적 생애과정의 모색 절에서 퀴어 커플의 사례를 살펴본 이유는, 이들에게서 동거 현상만의 극명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동성애 커플은 법률혼에 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즉 퀴어 커플들의 동거는 이성애 커플보다 사회학적 개인화의 의미에 더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는 정말 되게 깊게 이 관계를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이 관계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주변에 선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 어떤 '세레모니'를 하고 싶다. **'의식'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 **동성 결혼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 가령. 그냥 뭐 나와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평생 반려의 약속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약간 인간이 살면서 세레모니를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Q-F)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들만의 의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생적 전략에 해당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결합과 해체가 가능한 가족 형태를 '테트리스 가족'이라 명한 전영수(2020)의 주장처럼, 이들은 다각적인 조합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퀴어 여성 연구참여자는 5년 간의 동거 경험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면접 당시 두 번째 동거를 고민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동거 경험을 통해 파트너에 대해 더 신중히 고민하게 되었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더 잘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관한 이해도가 충분한 상황에서 가능한 판단이다.

> 그 사람이 집안일을 저희 집에 와서 데이트하거나 할 때 **집안일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게 잘 맞는거에요. 그래서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Q-F)

또한 퀴어 여성 연구참여자는 본인은 상대의 부모님을 명절마다 챙겨드리러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페미니즘 담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그녀에게 양가 부모님의 존재와 책임에 관한 의무가 전통적 가족주의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인정에 대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 파트너십에서는 전통적 생애 제도가 오히려 매력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동등한 법적 지위, 노동권 및 복지권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기든스(2018)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 저는 그 **명절 때 같이 집에 가거나 상대방의 부모님을 챙기거나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웃음) 그거를 하는 게 연애 단계에서 약간 오버인 부분도 있는 거고. (…) 누구 인정을 가장 받고 싶냐. 그러면 **나의 부모님과 상대방의 부모님의 인정을 가장 받고 싶다.** (Q-F)

Q-F와 같은 동성애 커플은 동거를 통해 현실에 맞는 삶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성애 커플의 경우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이 동성애 커플과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를 동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 이들 모두 관계가 언제든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며 영원한 관계를 꿈꾸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평생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 근데 또 모를 일이죠. **같이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인간의 일은 모르는 거고. 그니까 그거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은 또 있어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같이 살다가 헤어진다. 그랬을 때, **더 성숙하게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Q-F)

삶을 사는 형태와 개인의 가치관은 이토록 다양하다. 대안적 생애에 관한 고민들은 퀴어 연구참여자 뿐 아니라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다. 모든 청년들이 전통적인 이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어도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청년들은 전통적 삶의 유형에서 점점 벗어나 복합적 사고를 하며 친밀성의 탈제도화를 시도한다.

F-6은 생활동반자 법에 대해서 언젠가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신이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이 꼭 사회의 안정적 지원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결혼생각이 없지만 반려자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동반자법 이게, 특히 집값이나 이런 게 되게 생활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 사실 난 예전엔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어. 결혼할 놈 없으면 안하지 뭐 그렇게. 그래서 **그 때 당시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랑 파트너십 같은 걸로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 하나의 그런 **개인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떤 반려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법이 좀 있으면 좋겠고.** (F-6)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F-6은 청년뿐 아니라 노인들이나 동성애 커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출산과 육아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제도적으로 차이를 주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 특히 이런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이성애자가 아니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을 수 있을 것이고. (…) **노인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그런 가정과는 조금 제도적인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입장에선 또 다르게 보일 수 있**

**을 것 같아서.** (F-6)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의 실현이 어려워진 오늘날의 개인화 된 현실에서 동거가 새로운 가족의 대안적 통로가 되어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안적 생애 과정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생애 과정에 대한 모색들은 사회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고 친밀성의 혼란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청년들의 동거에 관한 내밀한 삶을 가시화하고 기존 청년 담론이 담지 못한 청년 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3포 세대 담론처럼 생존에 떠밀려서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이 아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개인화 상황 속에서 개인화된 친밀성을 추구하고 있고, 그 갈망은 동거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주거나 고용이 편하게 되면 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제한적 시각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는 이유에는 전통적 가족주의 체제와 그런 가족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담겨 있었음을 확인했다. 즉 청년들은 단순히 돈이나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청년 세대 1인가구 속에서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거에서 경험하는 친밀성은 동거의 계기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과 그 안에서 청년들이 현실적 문제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청년들은 관계 맺기의 성찰과 상대방을 위한 행동조율을 하게 되어 인격적 어른됨을 습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경우, 동거가 여성들의 삶과 페미니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화라는 변화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긍정적 요소로 인식되어 청년들로 하여금 친밀성에 관한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둘째, 한국에서 ‘결혼이 아닌’ 동거는 여전히 사회적 낙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특히 여성들에게 더 높은 압력으로 나타났고,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주변에 동거 사실을 선택적으로 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지속하는 이유는 양가의 가족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법률혼에 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감과 법률혼에 관한 압박감은 청년들이 더 이상 가족주의적이지 않은 가족 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동거는 가족 행태의 개인화 과정에서 나온 친밀성의 탈제도화 현상인 것이다.

관계 자체의 평등 또한 동거의 지속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일과 경제권을 삶의 중심에 놓고 공동의 삶을 일궈 나가며 평등한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개인화 상황 속에서 전통적 가족주의가 아닌 자신들만의 규율과 관계의 재정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족주의 체제의 가족 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확인하였다. 상호간 긴장감을 부여하는 동거만의 특성은 나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동거만의 특징은 친밀한 관계의 밀도를 높여 헤어짐을 어렵게 했다. 이는 동거 관계는 불안정하고 헤어짐이 쉬울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지점이다.

셋째, 동거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가능성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이라는 표현의 의미란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친밀성’에 더 가까운 것으로, 친밀한 관계 자체를 특별히 여기고 있다는 점이 공통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거 관계를 ‘가족’이라고 칭하는지 마는지 여부보다, 관계 그 자체가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파트너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관한 기준점을 세우게 되었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모종의 행동 변화에 책임감을 가지게 된 점을 동거의 이점으로 들었다. 이러한 이점들은 자신의 삶을 보다 자율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으며 자연스럽게 결혼 외에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파트너십, 출산을 위한 제도 등의 대안적 생애과정을 모색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들 또한 가족 행태의 개인화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독립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개인화와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친밀성을 포기하지 않는 가족생활의 개인화와 친밀성의 탈제도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친밀성을 포기한다는 기존의 3포세대 담론을 기각하는 사례가 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파트너와 갈등을 겪지만 모종의 행동변화를 겪으며 대안적 생애과정으로서 동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처럼 청년들의 동거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갖게 해주는 사회학적 현상으로, 개인화라는 변화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 증대와 친밀한 관계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제 2 절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동거 청년들의 생애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청년들의 친밀한 관계를 관계 내적인 영역, 사회구조적 영역, 대안적 가족 구성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친밀성은 쉽게 '포기'되는 것인가?

좌절과 불안 속에서 청년세대는 친밀성마저 포기한다는 위기감이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삶을 함께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분명 존재한다. 게다가 동거의 자연스러운 시작은 친밀성에 대한 열망에서 나온 것이다. 동거의 계기에 관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첫 질문을 던졌을 때 연구자는 매번 질문이 다소 당황스럽다는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반응을 보아야 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본능적인 부분인 것인데, 이를 질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이들을 한데 모아 N포세대라 명한다면 청년 세대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포기 담론의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결혼과 출산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친밀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밀성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기고 이것의 형성 과정이나 양상 자체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모두 괄호 속에 넣어버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그렇게 블랙박스로 만들어진 친밀성이라는 부분을 밝혀져야 할 내용으로 초점에 맞추었다. 친밀성의 '포기'란 쉽게 담론화 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청년들의 친밀성에 관해서도 훨씬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이질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것을 논의의 전제로 삼았으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거 관계의 '이별', '헤어짐' 또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은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쉽게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는 이혼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해서 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통념적으로는 동거가 결혼보다 약한 결합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결혼이 꼭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파트너와 결혼을 안 하는게 확신이 없어서라기 보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거나 사회적 인정, 지원 등의 이유를 들었다. 두 사람의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동거 관계에서 상당부분 완결된 것으로 관계에서 신뢰가 증대되어야 결혼으로 이어지는 예비과정이 아니었다.

심층 면담을 연구참여자 일부에 한해 두세 차례 정도가 최대였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점이 이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짐 싸기'의 어려움이라는 물리적인 제약과 감정적으로 깊게 '뒤엉킨' 관계의 깊이를 헤어짐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기술했는데, 두 가지 영역 모두 더 많은 사례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헤어짐'의 어려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는 청년들의 친밀성에 관한 깊은 이해 뿐 아니라, 관계의 안정성까지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다양한 가족에 관한 경험적 자원 축적의 필요성

'왜' 동거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이미 동거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동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급변하는 가족의 다양성 속에서 경험적·질적 자원의 축적이 충분히 안되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우선 본 연구는 이성애적 관계의 청년 동거 현상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모둠살이' 의 방식을 다루지 못했다. 퀴어 커플과 노년층의 동거 등 친밀함과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한 동거, 그 외에도 쉐어하우스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고 저마다의 특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거나 일정 수입이 있는 상태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는 연구자 네트워크의 한계로 동거 연구 안에서 계층성과 관련한 해석은 별도로 할 수 없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수준이 낮거나 혹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나쁜 사람들이 선택하는 동거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계층적 요인이나 원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관계 맺음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각각의 내밀한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지, 그것이 이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해야 한다. 동거조차 '경제적 현상'만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며 그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는 향후에 과제로 남긴다.

### 3.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함의

한국에서의 저출산은 최근 10년동안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과 주거 등을 안정화 시켜줘야 한다는 접근도 맞지만 물적 조건이 갖춰지면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 한계가 있다. 성적 친밀성과 가족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추구하지만, 유교적・권위주의적・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족주의 체제의 가족 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수용도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때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다.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결혼과 가족 제도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젊은 세대의 친밀성 실현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거 연구가 저출산 정책을 위한 기술적 연구가 된다면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청년 세대와 다양한 가족에 관한 근본적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1999년 팍스(PACS) 라는 시민연대협약 도입을 통해 1994년 37.2%에서 2015년 56.7%로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저출산 정책에도 함의가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팍스는 동거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프랑스인들은 결혼과 동거를 동급으로 여긴다. 프랑스는 혼외출산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전체 출산의 37.2%였던 혼외출산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는 57.1%까지 올랐다[31]. 1990년 1.76명이었던

[31] 한겨레,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프랑스…한국은 실태도 몰라", 2016.12.07

출산율도 2009년 2.0명에 도달한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팍스는 원래는 동성커플을 위한 협약이었으나, 이성커플들이 더 많이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이러한 협약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가족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관한 문제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동거의 확대가 한국 사회 가족관의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혼외 출산의 도덕적 인정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원활히 이뤄질 것인지는 별도로 생각해 볼 만한 함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동거를 하는 연구참여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모둠살이 형태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안적 생애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의 제고가 가족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절대적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족계획의 방향을 가족 다양성을 중심으로 발전시켰을 때 생애 과정에서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물적 조건 뿐 아니라 전통적 가족주의 체제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공적인 지원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수용도는 정책적 기반이 따라올 때 상승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모습을 동시대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는 시도가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가족 · 생애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추가적인 정책 함의 또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Creswell,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 권지성.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 John W. Creswell 저 ; 조흥식 [외]공역.

기든스(Giddens), Sutton, 김봉석, & Sutton, Philip W. (2018).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 앤서니 기든스, 필립 W. 서튼 [공]지음 ; 김봉석 옮김.

기든스(Giddens, A.) (1996) 배은경 · 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새물결출판사.

기든스 · 서튼(Giddens, A. and Sutton, P.) (2018) 김봉석 (역)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도서출판 동녘.

기든스 · 서튼(Giddens, A. and Sutton, P.) (2018) 김용학 외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김미현 (2008)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선기. (2019). 청년팔이 사회 : 세대론이 지배하는 일상 뒤집기 / 김선기 지음.

김수정 (2019). 개인화 시대의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94, 7-33.

김원정 · 김순남 (2018) "동거 가구의 변화와 한국의 결혼 · 가족 제도" 《가족과 문화》 30(4).

김지영 (2005) "동거를 통해 본 성별 관계의 지속과 변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루만(Luhmann, N.) (2009) 정성훈 외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출판사.

박은주 (2002)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동거 양상과 대안적 가족 개념의 모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페미니즘 연구, 9(2), 39-82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젠더와 문화, 8(1), 7-41
배은경 · 하정옥 (2017) 《경계를 가로질러 가족 만들기 = Making the Family across Boundaries》 시간여행.
벡 · 벡-게른샤임(Beck, U. and Beck-Gernsheim, E.)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출판사.
변수정 · 김혜영 · 백승흠 · 오정아 · 기재량 (2016) "다양한 가족의 출신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332.
부산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18).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지학사
송인하 · 임춘희 (2014)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에 대한 이상형적 이론구성" 《여성연구》 87.
신경아 (2013).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 욕구(welfare needs). 경제와사회, 266-303
이연주 (2008) "동거와 한국가족" 《한국인구학》 31(2).
임국희 (2020). '비연애' 담론이 드러내는 여성 개인 되기의 열망과 불안: 〈계간홀로〉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5(4), 114-158.
임홍택. (2018).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생이 온다 / 임홍택 지음.
장경섭 (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장경섭 (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과 문화", 23(3): 1-23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의 위기》 집문당.
전광석. (1990).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녀평등권-사회보장법에서의 조화적실현-. 고시연구, 17(7), 60-74.
정병은 (2017). 새로운 친밀성: 미래세대의 가족관계.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75-93
조은희 (2009)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법학연구》 12(2).
홍찬숙 (2017). 동북아 가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동북아역사논총(58), 372-415

## 2. 국외 문헌

Beck, Beck-Gernsheim, & Beck-Gernsheim, Elisabeth.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 Ulrich Beck and Elisabeth Beck-Gernsheim.

Booth, A., Crouter A. C. and Landale, N. S. (2002) "Chapter 1. Cohabitation in Western Europe: Trends, Issues, and Implications",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s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Routledge.

Bowman, C. G. (2010) "Chapter 4. Social Science and Cohabitation", Unmarried couples, law,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USA.

Corbin, J. and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3rd Edition.

Glaser, B. and Strauss, A. (2008)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Transaction.

Hammond, R., Cheney, P and Pearsey, R. (2015) "Chapter 5. Love and Intimacy", Introduction to Sociology, (http://www.freesociologybooks.com), (2019. 12. 17).

Manning, W. D. and Smock, P. J. (2005) "Measuring and Modeling Cohabitation: New Perspectives From Qualitative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Smock, P. J.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Stanley, S. M., Rhoades, G. K., and Markman, H. J. (2006) "Sliding Versus Deciding: Inertia and the Prmarital Cohabitation Effect", Family Relations, 55.

## 3. 신문 및 온라인 기사

데일리굿뉴스, "살아보고 결혼할까?", 2007.07.18 (2021.08.26 검색)

경향비즈, “2030세대 절반 ‘나도 5포 세대’ 남 ‘결혼’, 여 ‘출산’ 가장 먼저 포기”, 2015.03.03 (2021.09.03 검색)
조선비즈, “3포세대? 이제는 7포세대! ‘결혼·출산·내집마련順 포기’”, 2015.04.30 (2021.09.03 검색)
한겨레,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프랑스…한국은 실태도 몰라”, 2016.12.07 (2021.09.03 검색)
세계일보, “‘싱글라이프’ 만족도 높아진 시대, 비혼·동거·계약결혼 늘어난다”, 2019. 3. 26, (2019.10.10 검색).
한겨레, “국민 10명 중 6명 ‘가족 범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2019. 9. 29, (2019.10.10 검색).
경향신문, “사회 주역으로 뜨는 ‘세대’가 궁금해…‘밀레니얼’ 출간 봇물”, 2019.12.30 (2021.09.03 검색)
매경이코노미, “‘탈가족 시대’ 이상한 정상가족…혈연·결혼 NO ‘분자가족’ 봇물”, 2020.09.23 (2021.09.03 검색)
한국경제, “'3포세대' 급증…사상 최저 출산율 우려", 2020.12.31 (검색)
조선일보, ““썸보다 돈이 좋아” 코로나 청춘들의 비혼 예찬”, 2021.03.01 (2021.09.03 검색)
중앙일보, ““당장 생존 급한데 초경쟁사회, 90년대생은 출산이 두렵다”, 2021.03.04 (2021.09.03 검색)
오마이팩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면 동성혼 합법화" 주장은 '거짓'”, 2021.03.17 (2021.09.03 검색)
오마이뉴스, “동거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2021.04.05 (검색)
경향신문, “부계·법률혼 중심 전통 가족개념 탈피…법 개정 등 갈 길 멀어”, 2021.04.27 (2021.09.03 검색)
한겨레, “없는 존재 돼버린 법외 가족들…“생활동반자법 논의할 시점”, 2021.05.13 (2021.09.03 검색)
시사인, “‘가족’ 한계 인정한 정부, 다양성 포용 우선순위로”, 2021.05.18 (2021.09.03 검색)
경향(플랫), “비혼 여성의 좌충우돌 난자냉동 에피소드, 단편영화 <마이 에그즈>”, 2021.05.20, (2021.09.03 검색)
중앙일보, “MZ 10명 중 6명, “조직문화 불합리하면 ‘짐 쌀 준비한다’”, 2021.07.29 (2021.09.03 검색)
매일경제, “결혼은 선택, 맘에들면 '내돈내산'…밀레니얼과 또 다른 Z세대입니다”, 2021.08.13 (2021.09.03 검색)

# <부록-1. 심층면접 질문지>

1. 동거의 계기를 포함하여 귀하의 동거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처음 시작한 시기, 동거 기간, 주거 형태, 주거비/생활비 부담 방법, 가사분담 방법 등)
   1-1. 동거를 하기 전 동거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2. 귀하는 동거 과정 중 갈등을 겪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3. 귀하께서는 귀하의 동거 사실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까? 주변 사람들 중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면 그 대상과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3-1. 한국 사회의 동거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귀하의 동거 시작 혹은 동거 과정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활동에 대해, 없다면 왜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5. '책임' '의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귀하의 동거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6. 귀하께서는 결혼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6-1.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려동물을 기르고자 하거나 기르고 계십니까?
   6-2.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의 동거 경험이 귀하에게 미친 여러 영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8. 동거의 장/단점을 포함하여 동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